



논산사랑50년 문화사랑50년!

ISSN 1739-8924

Nonsan Culture Quarterly Magazine

논산문화

2007. 봄호 VOL.103



논산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 권두컬럼 - 급변하는 사회속의 예술
- 논산이야기⑤ - 선전배라
- 선인들의 삶과 지혜 - 한시(漢詩)에 담긴 부부애
- 세계문화옛보기 - 장님이 더듬은 꼬끼리의 나라 - 인도①

물고기는 모두 꽃을 피운다

길 상 호

어두운 저수지에 가보면 안다
모든 물고기 물과 대기의 중간에
꽃 피워놓고 잠든다는 것을,
몸 덮고 있던 비늘 한 장씩 엮어
아가미 빨개지도록 생기 불어넣고
부레의 공기 한 줍씩 묶어
한 송이 꽃 물 위에 띄어올릴 때
둥근 과장이 인다
둥글게 소리 없는 폭주처럼
수면을 채우는 꽃들,
어둠은 그 향기를 맡고 날아들어

동심원의 중심에 배꼽을 맞춘다
수천 년 동안 물고기가 보낸
꽃의 신호를 들은 사람 몇 없다
안테나 같은 낚싯대 드리우고
꽃을 따고 있는 저 사내들도
물고기의 주파수 낚지 못한다
부레 속에 녹여 채워둔
물의 노래와 그 빛깔을,
더 멀리 퍼뜨리고 싶어서
오늘도 물고기는 꽃을 피운다

약력

- 1973년 논산 출생,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0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 시집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 『모르는 책』.
- 현대시문학상, 이육사문학상, 신인상 수상



Contents

- **권두시** - 물고기는 모두 꽃을 피운다 / 길상호(시인)
- **권두컬럼**
- 04 급변하는 사회 속의 예술 / 이기재(한국예술총논산지부회장)
- **권두논단**
- 06 전통혼례의 현대적 해석 / 김인옥 (건양대학교 예식산업학과 교수)
- **논산이야기⑤**
- 09 선전배라 / 류제협(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 **논산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③**
- 12 너무나도 낮은 이름들 / 권선옥 (한국문인협회 감사)
- **포토에세이**
- 16 폐지 해의 봄날맞이를 둔암서원에서 / 김영수 (사진작가)
- **네 꿈을 펼쳐라**
- 18 디지털 조이! - 꿈을 현실로 디자인 하는 곳!
/ 오서로, 유한나, 조성희(충남인터넷고등학교)
- **영화 속의 삶**
- 20 괴로운 미녀와 음침한 목소리 / 구상범(영화연출가)
- **선인들의 삶과 지혜**
- 22 한시(韓詩)에 담긴 부부에 / 정연봉(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외래교수)
- **연대시 산책**
- 24 절망의 시학, 행복의 수사학-김승희
/ 박연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아름다운 음악산책**
- 27 봄을 나타내는 음악들 / 오영걸(논산문화 명예기자)
- **세계문화 옛보기**
- 28 장님이 더듬은 꼬끼리의 나라-① / 임채학(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 **우리가 알아야 할 작은 문화유적⑫**
- 32 고인돌-논산의 선사 유적지 / 강용은(논산문화 명예기자)
- 33 **논산문화 자료 발굴 / 편집부**
- **문화인에게 권하는 우리 책**
- 34 정경일(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
- **NEWS 화보**
- 36 문화원 소식
- 40 내고장 소식
- **문화원 발간 도서 소개**
- 42 '논산지역의 제례의식' 발간에 부쳐 / 김문준(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43 **문화원 뉴스**
- 44 **문단**
- 60 **청소년 마당**
- 70 **논산시 지정문화재 목록**
- 73 **문화행사소개**



논산문화

Nonsan Culture Quarterly Magazine

논산의 봄은 탐정호에서 오는 듯하다.
빛 받은 잔물결, 반영에 비친 벼들속일,....
터질듯 치 솟는 생의 한희, 논산벌의 봄은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이런 봄 햇볕 받은 저수지의 세력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다.

표지사진 | 김수영

표지디자인 | 최정훈

편집위원

정경일 / 건양대학교 교수
권선옥 / 시인, 한국문인협회 감사
김선우 / 시인, 화자신문협 이사장

최정훈 / 건양대학교 교수
임은주 / 논산시 문화예술담당
류제협 /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2007. 봄호 Vol. 103

발행 / 20070401 발행인 / 박응진 발행처 / 논산문화원 충남 논산시 내동 279-4
Tel. 041-732-2395 Fax. 041-732-2394 http://nonsan.culture.or.kr

편집·디자인 / 불커뮤니케이션 Tel. 042-486-2725 Fax. 042-483-2726

※ 이 해운호-산시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습니다.

2007. 04. 봄 | 03

급변하는 사회 속의 예술

이기 채 _ 한국예총논산소초부회장

현대인들은 예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여가에 반문을 제시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 없이 추구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참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보편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우리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서부터 인류의 각기 다양하고도 차별화되는 모든 행위를 전부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아주 짧은 음절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예술의 광범위한 개념은 아마 우리가 내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모두 살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창작활동 예술은 사람들이 먼 태고적부터 일과시간 외에 여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 여가문화가 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여가 시간동안 일이 아닌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 시간을 즐기는 유희의 예술에 태동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러한 여가를 예술은 기술과 과학의 폭발적인 진보로 인해 여가의 시간이 증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심 화두가 되었다.

예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아마 모두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흔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영역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지적 산물일 것이며 이러한 감성적인 지적 산물로서 문화예술은 때로는 무형의 인적 용역일 수도 있고 다량해진 미디어를 통해 무한대로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의 제작물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예술은 그 유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진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은 다양한 경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면 국가의 위상이 될 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순한 문화예술을 틀을 벗어나 다국적, 기업화가 되는 상품적 가치로 경제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산업화 되고 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기업의 예술 후원을 뜻하는 메세나라는 단어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역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예술의 부흥시대인 르네상스를 연 것도 메디치 가문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메세나는 기업의 수많은 사회활동 중 예술분야의 후원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와 정보화를 넘어 기업의 무한경쟁이 펼쳐지면서 예술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메세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즉 예술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자선관점에서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문화마케팅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크게 작용했다.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축제의 봄이 일어나는 것 또한 예술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그 지역의 이미지 부각과 예술인들의 창조적 활동으로 꾸준한 발전은 물론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논산지방도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젓갈축제, 지역특산품의 대표적인 딸기축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논산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예술인들의 활동으로 해마다 큰 성과와 지역특색 이미지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예술 부흥의 일익을 위해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논산지부는 설립한지 올해로 십삼년을 지나오며 산하단체인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지부등과 함께 우리 논산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논산 공설운동장안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을 사랑하고 논산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예술인들의 열망이 합쳐질 때 우리 논산은 예술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예술의 고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믿어본다.



전통혼례의 현대적 해석



김 인 옥 _ 간양대학교 여성산업학과 교수

인간이 태어나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의 삶을 크게 구분하면 생득적 삶과 성취적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득적 삶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삶이라면, 성취적 삶은 인간의 성장과정 속에서 자의(自意)의 노력에 의해 얻게 되는 삶이다. 그렇다면 남녀가 결합하는 혼례를 굳이 두 가지 부류 중 하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어디에 넣어 보고 싶은가? 이는 독자들의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우선 혼례(婚禮) 용어의 참 뜻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례란 남성중심의 용어라 할 수 있다. 嬀(계집 녀)에 昏(해질 무렵 혼)의 합자로 '해질 무렵에 여인을 맞이한다.'로 풀이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아내를 맞이함을 나타낸다.

본래 여성이 '시집간다'고 할 때에는 '인(姻) 자를 함께 쓰도록 되어있다. 女에 因으로 '여인으로 인하여 혼사가 이루어 진다.'로 풀이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자유혼이 아니므로 중매 장이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여인은 중매장이를 뜻한다. 따라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의미로 이를 혼인(婚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거 혼인은 저녁 때 해질 무렵에 행해졌다. 남녀의 결합은 곧 음양(陰陽)의 조화를 의미하므로 하루 중 해와 달이 공존하는 시간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혼례를 예서(禮書)에서는 昏禮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자주 쓰고 있는 축약단자에 親 華 婚 이나 親 婚 姻 은 그 의미에서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나, 親 結 姻 은 신부 측 서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임을 알고 써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 혼인은 유교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권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였다. 효를 근간으로



하는 가문영위, 자손번창을 위한 대의(大義) 안에 성인된 남녀는 집안 어른이 짝지어 준 사람과 혼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할머니의 혼인사(事) 인터뷰 도중 들었던 놀라운 사실은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첫날밤을 치룬 그 다음 날 자는 모습으로 처음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생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람으로 알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혼인 날 신부가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싶어 눈을 지켜뜨는 모습이 상스럽다 하여 신부의 눈 밑에 봉밀(蜂蟻)을 붙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 짝을 맺어 주고 혼사를 논의하는 과정을 의혼(義婚)이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 간 선을 통한 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오직 부모들이 정해준 배필을 맞이한 뿐이다.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의 약속에 의해 어린나이에 정혼(定婚)이 되거나 어미 뱃속에서 이미 혼인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배넛혼 이라고 한다. 혼인의 전 과정을 통해 개인보다는 집안 어른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한 측면을 이야기 하자면, 남녀의 결합은 인륜(人倫)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힘이 작용해야만 성사될 수 있고 지행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신께 맹세하듯 만인의 친지 앞에 혼인 약속을 하는 것도 인륜적 도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의 전 행례과정상 절차에는 일정한 의식이 수반되고 심오한 의미가 저장되어 있다.

현대의 혼인문화 속에는 아직도 일부 한국인의 고유한 혼인 풍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사주, 택일, 혼수, 예단, 함, 폐백 등이 그러하다.

사주단자는 신랑의 생년월일시 등을 써서 신부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신부 집에서는 신랑신부의 사주를 맞추어보고 혼인날을 택하여 신랑 집으로 보낸다. 이를 택일단자 혹은 연갈단자라고 한다.

해마다 봄가을이 되면 많은 커플들이 식을 올리게 된다. 의례 중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낳고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혼수 문제이다. 예단이니 혼수니 하는 것들이 신부 집 가동뿌리를 뽑기 위해 만들어진 관행은 아니었다.

예서에 의하면 혼인에 재물을 따지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라 하며, 혼사를 논할 때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지출은 오히려 자식을 사고파는 매매혼으로 치부하여 매우 천하게 여겼다.

함은 본래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납폐(納幣)의 예를 행할 때 신부에게 전해 줄 예단을 넣었던 혼례물품이다. 함에는 신부의 청홍 치마감과 혼서지, 그리고 지방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곡식을 넣는다. 서울지방에서는 황낭(黃囊: 노란주머니)을 만들어 그 안에 콩, 팥, 목화 등을 넣었다 한다. 여기에서 채단은 신부에게 줄 옷감

이고, 혼서지는 사돈집에 보내는 서안이다. 함에 곡식을 넣었던 것은 농경사회에서 부귀와 풍요의 상징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함진아비가 함을 가지고 갈 때 집안에서 부리는 노비나 근친이 지고 간다. 호사다마(好事多魔) 라고 일부 지방에서는 함진아비 얼굴에 점칠 솜을 천하게 하였다. 신랑 집에서 함이 나아갈 때나 신부 집에서 함을 받을 때 모두 봉치떡(봉채떡)을 준비해 둔다. 봉치떡은 찹쌀가루와 팔고물 각각 두 컵 위에 대추와 밤등 고명을 박아서 찐다. 이성지합(二姓之合)을 의미하는 찰떡은 신랑, 신부의 해로(偕老)를 상징하므로 칼을 대지도 않고, 집 밖으로 돌리지도 않았다. 대추



와 밤 등은 혼인날 끼니를 거르기 쉬운 신부에게 주발뚜껑으로 떠서 먹였다 한다.

이와 같이 혼례의 생활사적 연원을 보면 예식 전반에 걸쳐 신랑, 신부 당사자 중심의 의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초례(醮禮)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랑신부는 음양의 이차에 따라 초례상을 중심으로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위치에 선다. 홀기(笄記)에 따라 교배례(交拜禮)후 합근례(合簪禮)로 진행되는데, 전 과정이 오직 예식진행자인 집례자에 의해 식이 진행될 뿐 주례는 없다.

한편 오늘날 신부가 시댁 어른께 드리는 대추와 고기(육포) 그리고 이를 올리는 절차까지도 폐백으로 통하는데, 폐백(幣帛)은 본래 현구고례(見舅姑禮) 과정 중 시어른께 올리는 예단을 일컫는다. 혼례식 후 관례적으로 삼일동안 신부의 집에서 머문 후 시가(孀家)로 향하게 된다. 그 전까지 신부는 시어른을 본 적이 없다. 이때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고 예를 갖추게 되는데 이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한다. 시아버지께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께는 고기폐백을 올린다. 대추는 한 뿌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과실로서 예로부터 자손번창의 의미로 쓰였다. 고기는 일반적으로 편포나 육포, 대에 따라서는 닭을 사용한다. 살림이 어려운 집에서는 쇠고기를 쓸 수 없어 과거에 일반서민들은 닭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육류는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최상의 음식으로서 시어머니께 올렸던 것이다. 시아버지께 대추폐백을 올리면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대추를 쥐어 주며, 대(代)를 잇고 자손 번영을 기원하는 뜻의 덕담을 해 준다. 시어머니께 고기폐백을 올리면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고기를 쓰다듬는다. 이는 새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흉허물을 덮어 감싸 안겠다는 의미라 한다. 고기폐백을 쓸 때에는 반드시 두 덩어리를 쓴다. 이 또한 음양원리에 따라 남녀가 하나 됨을 의미하므로 청홍실로 폐백을 장식하도록 되어있다. 최근에는 닭 한 마리 올려놓고 폐백의 예를 갖추었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를 이을 자손번창의 의미인 대추는 직계존속인 시아버지와 시한아버지만이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모부, 이모부 그리고 지나친 경우는 여자 분이 던져주는 예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세상이 변화였다. 우리의 혼례문화도 변화한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 집 건너 한집이 이혼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날의 혼인의 의미를 깊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 예(禮)에는 사회가 아무리 변화해도 본질적 내면의 세계에서 다스려야 하는 상례(常禮)가 있는 것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변례(變禮)가 있는 것이다. 일부 지식인들이 작금의 사회에서 한국 혼례문화의 병폐적 요소를 혼수(婚需)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논거(論據)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혼례과정 속에 내재된 그 의미의 심오함이 현대사회 혼인예식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출처 : 코리아닷컴 eroom〉 사진

류 제 협 _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선전 삐라

6.25 때 대둔산 줄기가 뻗어있는 별곡, 양촌, 가야곡면 지역에는 항공기를 이용 하여 공중에서 많은 선전삐라가 뿌려졌었다. 특히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후 북한 지역으로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의 일부가 대둔산으로 집결하고 논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좌익 사람들이 대둔산으로 숨어들자 이들에게 항복과 자수를 권유하는 삐라가 많이 뿌려졌었다.



필자가 6살 되던 1952년 겨울 어느 날, 그날도 우리 마을 공중에서 항공기 한대가 많은 뼈라를 뿌리고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어린 시절, 공중에서 팔랑거리며 내려오는 수천수만 장의 뼈라 무리는 마치 요즘 천재들의 군무를 보는 것처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팔랑이며 내려오는 뼈라가 햇빛을 받아 반짝 반짝 빛나는 듯 내려오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뼈라를 뿌리던 비행기에서 끈이 풀리지 않은 한 뭉치의 뼈라가 그냥 마을 뒷산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인가가 없는 산중으로 떨어졌으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마침 뒷산으로 땀감 나무를 하러 갔던 우리 마을의 이웃집 아저씨가 나무 대신 이 뼈라 뭉치를 지게에 지고 왔다. 우리들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그 것이 또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지금부터 50년이 훨씬 넘는 그 시절에는 경제사정도 극히 열악했기 때문에 우선 굶어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 따라서 주저 환경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돌볼 여유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벽에 벽지를 바르고 사는 집은 불과 몇 집 되지 않았고 거의 전부가 벽에 황토 흙을 발라놓은 상태로 그냥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집에 가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았다 오면 옷에 흙이 많이 묻어 어머니께 혼나곤 했던 기억이 있다. 이 뼈라를 주어진 아저씨네 집도 그런 흙벽으로 사는 집이었는데 마침 종이가 대량으로 생겼으니 이 뼈라를 가지고 그야말로 집에 도배를 하게 됐다. 당시 불과 6살 밖에 안 된 꼬마의 눈에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눈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일반 벽지와 달리 A5 용지 크기 정도의 뼈라에 흑백 그림과 사진 그리고 글씨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신기한 일이나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내가 근년에 우리지역의 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데 50여 년 전의 이 일이 떠올랐다. 이 집은 수년전부터 빈집으로 남아있고 벽과 지붕의 반 정도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 올해 장마철에는 완전 붕괴가 될 위험한 상태이다. 몇 주 전나는 이 집을 찾아가 그 뼈라 찾는 작업에 들어갔다. 벽지는 대개 떼어내지 않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덧바르니 맨 속에는 그 뼈라 벽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벽지를 신문지만큼씩 크게 몇 장 벽에서 떼어냈다. 그랬더니 역시 기대 했던 대로 맨 안쪽에 내 기억속의 그 뼈라가 있었다. 벽지의 겹친 수를 세어 보니 6겹이나 덧바라져 있었다. 이 벽지 조각을 집으로 가져와 따뜻한 물에 몇 시간 담가 놓았다가 완전히 불은 다음 조심스럽게 떼어내니 완전한 뼈라 한 장을 분리할 수 있었다.

분리하여 자세히 보니 1952년 11월 8일 자로 유엔군 사령부에서 주간 신보로 발행된 한 장짜리 “자유세계” 라는 일종의 신문이었는데 이것을 산악지역에 뿌렸던 것이다. 내용은 대략 “유엔 총회에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과 소련 외장 비진스키의 연설내용, 유엔군



〈출처 : 코리아닷컴 eroom〉 사진

전면

후면



1952년 11월 6일 전면 뒷면에 배라로 뿌려졌던 주간 자유세계(필자의 이웃집 벽지로 도매된 것을 50여년만에 분리한 것이다)

의 육, 해, 공군이 여러 전선에서 잘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휴전 회담에 관한 것과 그 옆에는 중공군 부상자를 부축하여 구출하는 미군들의 사진도 실어 놔다. 또 미국 소년소녀적십자사가 학용품과 장난감이 들어있는 2달러 상당의 선물상자 10만개를 한국 어린이들에게 보내왔다는 그림 만화도 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기사는 사설(社説)로 쓴 "쌀을 감추라!" 라는 것이다. 내용은 피땀 흘려 농사지는 쌀을 감추어 다가오는 겨울에 우선 당신들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공산당 세무서는 가난한 노동자, 병정, 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대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산도배들과 중공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다. 공산당세무서에 쌀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을 참화로 몰아넣은 북한 공산도배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만일 굶주리는 동족이 불쌍하거든 여러분이 직접 주라. 집안 식구와 동족을 굶기지 말고 쌀을 감추라." 는 것이다. 여기서 "공산당 세무서에 쌀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인민군 지배하에 있던 지역에서 그들이 거두어 가던 현물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설의 목적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급로가 끊긴 인민군과 빨치산들 에게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일종의 청야작전(淸野作戰)으로 유엔군 측에 항복하라고 오도록 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6살 꼬마가 보았던 배라에 대한 기억을 따라 50여 년 전으로 가슴려 올라가 보았다.

너무나도 낮익은 이름들

— 화가 박춘화

권 선옥 _ 한국문화협회 감사

오랜만에 박춘화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자주 내왕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참 오랜만이다. 『논산문화』에 박 선생을 소개하기로 하고 나서 나는 왜 여지껏 박 선생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 놀랐다. 논산에서 오래 살면서 미술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놀뫼미술학원>이나 <화가 박춘화>를 기억할 것이다. 박춘화 선생은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몇 년간을 제외하고 줄곧 논산에서 살아온 토종이다. 논산 토박이인 나의 뇌리에는 언제부턴가 이런 이름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박춘화 화백은 논산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화가들 중에서 낮익은 이름이다.

박 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학원으로 갈 참이다. 놀뫼미술학원-논산의 술한 미술 학도와 화가 지망생들의 따스한 보금자리였던 놀뫼미술학원. 나같이 그림과 관련이 없는 문화인에게도 놀뫼미술학원의 의의는 대단한 것이다. 그만큼 박춘화 선생이 논산의 미술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뽀뽀하고 앞의 이층, 좁은 계단을 올라 몇 번인가 박 선생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나는 옛 위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 낭패인가. 논산중앙초등학교 인근으로 옮긴 자가 몇 해라나…….

길눈이 어두운 나는 한참만에 여러 학원들 사이에 끼어 있는 놀미미술학원을 찾았다. 어쩐지 전에 비해 몸집이 작아진 느낌이다. 어렸을 적에 키가 커 보였던 할머니, 어느 날 오랜만에 그 옆에 섰을 때 할머니가 작아졌을 때의 안쓰러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독학으로 이룬 그림나라

박 선생은 당시 논산을 반월동 논산극장 앞에서 출생하여 취암동으로 이사하여 성장하고, 서울 생활 몇 년을 제외하고는 논산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미술 실기대회에 나가도록 뽑아주신 것이 그의 그림 인생의 첫발이 되었다.

그 뒤로 미술대학을 다녔다거나 유명 화가의 문하에서 사사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무사독학(無師獨學),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서 터득하고 깨우쳤다. 하나를 알기 위하여 무수한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했다. 그러자니 그 신교(辛苦)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림은 기본이 돼야 하는데, 독학으로는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 어찌 그림만인가. 예술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한다. 기본의 되지 않은 것은 정말 공해와 같다. 예술도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끼와 같은 삶의 모습

박 선생의 그림하면 이끼가 떠오른다. 전시회마다 출품되는 작품이 이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기도 하다. 무심히 보면, 또 이끼 그림이군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이끼라도 바위를 가득 덮은 이끼가 있고, 나무에 꽃처럼 핀 이끼도 있다.

작품 세계가 변모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선생의 삶은 당초부터 고독했던 것 같다. 처음 그림을 그리면서 즐겨 그렸던 소



권선옥 한국문인협회 감사(右)와 대화 모습

재는 풍경이었다. 그 중에도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산성(山城)을 즐겨 그렸다. 무수히 많은 사연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월의 뒤안길에서 잊혀져 가는, 영화가 지나간 뒤의 쓸쓸함을 그렸다. 많은 산성을 찾아 여러 산성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충남미술대전의 초대 작가가 되었다. 홀로 이루어낸 눈물겨운 쾌거(快舉)였다.

이제 새로운 작품 세계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찾아낸 것이 이끼였다. 아니 새롭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선생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것이다. 산성을 찾아다니다가 눈에 띈 이끼였다. 선생은 쓸쓸히 말했다.

“이끼는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키도 작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력이 강하지요. 말라 비틀어졌다가도 물만 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새파랗게 살아납니다. 나와 비슷하지요. 공해에 약한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환영받지도 못하지요.”

가장 아끼는 작품

박 선생의 그림의 색조는 화려하지 않다. 회색쪽과 갈색이 좋다고 했다. 늦가을이나 3월 이전의 햇살이 빛이 좋고 맑은 세상을 담고 싶다고 했다. 화려한 색은 겁이 나서 쓰지 못한다고 했다. 중량감을 주지 못해서 이기도 하다. 누구나 좋아하는 봄 풍경은 그리지 않는다. 화사한 꽃이 있으면 무게의 중심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선생이 가장 아끼는 작품은 논산시청 민원실에 걸려 있는 작품인〈생존 83〉이라고 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생존 83〉은 많은 사연이 담긴 작품이다. 그 작품은 〈목우회(木友會)〉에 출품하여 특선을 한 작품이다. 그래서 프랑스 〈트사롱전〉에 출품하기로 했다. 그 때에 출품료가 25만 원인데 작

품을 보내기로 한 전날에 도둑을 맞아서 출품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이 작품에 더욱 애정이 가서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시청의 전시 요청을 받아 들여 시민들에게 불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존83〉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간다

박 선생은 올해 회갑을 맞았다고 한다. 서른여섯에 결혼하여 서른아홉에 낳은 외동아들이 대학 4학년,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선생의 대답은 단호했다. 고생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대답 가운데의 ‘고생하는 한 사람’은 선생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겠다. 결코 만족한

수 없는 오늘날의 문화 풍토, 화가로서의 성취 욕구 등을 생각하면 선생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화가 남편을 둔 사모님의 고생, 쉬는 날이면 혼자서 소재를 찾아나서는 일, 정기적으로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재정 상태, 다시는 그림쟁이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모님의 말씀 등으로 미루어 사모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모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인데,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한다.

존경하는 선배 화가로는 조각가 이종수 선생을 지목했다. 이종수 선생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 보자고 사직 후 대전에 정착하신 분이다. 필자가 존경하여 따르던 박용래 시인과도 절친한 분이어서 박 시인 맥(宅)에서 자주 뵈었던 분이다. 미술하는 후학들은 이 선생께 어김없이 존경심을 갖고 있다. 작품에 대한 엄격함, 예술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안락한 생활을 버린 용기, 이종수 선생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라???이 좋아서 안일한 삶을 마디한 박 선생의 삶과 일백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선생이 작품 제작에서 쓰고 있는 요철 작업은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동시에 몇 작품을 진행시킨다. 500점에 육박하는 작품을 세상에 내보낸 박 선생. 남이 고기를 먹을 때에 라면 하나 먹고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다시 태어나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박 선생. 가정이나 생활인으로서의 삶 대신에 화가로서의 삶을 선택한 박 선생. 어떤 삶을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진정한 용기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 불현듯 유화물감의 기름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덮는 이끼처럼 박 선생의 작품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돼지해의 봄맞이를 돈암서원에서...



김영수 _ 사진작가

금년은 정해년! 육백년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해라고 모두들 좋아하고 있다. 어떤이는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경기침체, 부동산 문제등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금 황금돼지해가 주는 희망과 약간의 설레임도 있는 것 같다.

어느새 입춘이다. 농사를 주업으로 했던 옛 선조들은 한 해의 농사일이 시작되는 입춘을 새해의 첫 날로 생각하여 입춘문을 써 붙이는 등 봄맞이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새 봄을 맞는 나도 의미있는 봄맞이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막상 봄맞이를 할 만한 곳을 찾으려니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러던 중 돈암서원이 생각났다.

문암서원은 서원의 뒤쪽에 돈암(돼지바위)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 문암서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금년은 돼지처럼 건강하고 튼튼하며, 황금돼지 해라고 믿듯 우리네 살림살이도 넉넉해지고, 바라던 새 식구도 낄는 뜻에서 정해년 새 봄 맞이를 문암서원에서 맞이 하기로 하였다.

이사 온 문암서원

문암서원은 논산역에서 대전 방향으로 약 8.5km 되는 논산시 연산면 임리 서원말에 있으며, 원래는 이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숲말에 있던 것을 장마 때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1881년 이 곳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서원 입구에 이르니 산양루가 날아갈듯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산양루는 사계선생의 도덕을 기리며, 원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후수의 공간으로 2006년에 재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양루 뒤에 큰 글씨로 문암서원이라고 쓴 외삼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입덕문이라 한다. 매일매일 입덕문을 드나드는 유생에게 큰 덕을 일깨우기 위한 배려와 문암서원이라는 이름이 내린 편액은 원생은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서원은 만남의 공간이다. 선현과 학문하는 아들이 제사와 학문을 통해 만나는 곳이다. 스승과 제자가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선배와 후배가 학우와 학우들이 만나는 곳이다. 서원에서는 운명을 바꿀 정도의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 서원에 전해 오는 우암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암은 성격이 급하고 팔해서 참으로 접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담배밭을 지나다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담배임으로 담배를 피웠으며, 어느날 밤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앞에 늘어져있는 끈을 붙잡고 일을 마친 후 살펴보니 호랑이 꼬리였다는 일화가 있다. 이와같이 청년 우암은 기와 담력이 센 장사였다고 한다. 진정 조선제일의야성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이런 우암이 사계 선생을 만나 학문을 익히고 예학을 터득하여 조선 제일의 학자요 정치가로 변신했으니 야성이 지성으로 변환 운명적인 만남이요 발전이 아니겠는가?

양성당과 장판각사이애 수백살이 되어 보이는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 봄을 맞이 했을까?

나는 입춘날 그 늙은 향나무에 기대 생각하여 본다. 새 봄이 오듯 임진, 병자장란에서 국가를 구한 도의 정신이 오늘 날에도 다시 피어났으면 하고...



네 꿈을
펼쳐라

디지털 조이! 꿈을 현실로 디자인하는 곳!



오서로(2년), 유한나(3년), 조성희(3년) -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충남인터넷고등학교 학교기업 동아리 「디지털 조이」회원입니다.

디지털 조이는 2004년 7월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미래직업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창업된 학교 기업이며 우리들의 꿈을 현실로 디자인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디지털 조이는 본교의 컴퓨터 그래픽과, 인터넷상거래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 e-learning 콘텐츠 제작을 사업종목으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있습니다.

디지털 조이는 국내의 유수의 대학 및 기업과 산·학 협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과 산업체로부터 협력교사를 초빙해 자본이나 기술을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내용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본교를 홍보하는 홍보 동영상 자료 제작은 물론 타교나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디지털 조이담당선생님으로부터 디지털 조이동아리 활동을 해보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땐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머뭇거렸었지만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고 생각과 삶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실무 종사자이신 전문가로부터 직접 배우며 실무 경험을 쌓아가는 재미와 다른 학우들이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자부심과 뿌듯함이랄까요? 물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펼쳐버릴 수 있게 된 것과 진로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일석이조, 아니 일석 다조의 역할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조이에서는 영상팀과 e-learning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섭렵하고 있지만 취미나 흥미위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 기업활동으로 전문가 수준에 이르도록 연습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팀을 나누어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영상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학습자료나 단편영화, 광고, 홍보물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주제를 정하고 담당자를 분배하는 등의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에 맞는 장면마다 캐릭터를 그려냅니다. 시나리오에 맞는 적절한 장소와 캐릭터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어 관계자 및 그 인물에게 영화촬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직접 메고 나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동아리 회원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각종 행사나 의뢰를 받아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걷는 발걸음은 카메라 무게를 느끼지 못한 정도로 가볍기만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모습을 찍어내는 재미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카메라가 아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를 다룰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자랑스럽기 그지 없으니까요!.

촬영을 마치면 세밀하게 편집하고 효과음을 넣어주어 더욱 생생한 영상자료를 만들어 냅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의 영상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e-learning팀에서는 플래시를 우선 배우고 익히는데, 플래시라 해서 흔히들 말하는 플래시애니메이션이나 게임등이 아니고 홈페이지나 e-learning에 쓰일 모션, 포털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등을 만들기 위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창작해내는 일입니다. 또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익히고 좀 더 차원 높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선 현장실습 차원으로 대학이나 전문기업을 찾아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디지털 조이는 선배 및 전문가로부터 차원 높고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점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점, 또한 학교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부심과 용기, 성취감을 맛보게 되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미녀와 음침한 목소리

구상범 _ 영화연출가

새 썩이 움트는 따스한 봄이 돌아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겨울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흥행작 “미녀는 괴로워”와 현상 수배극 “그놈 목소리”의 다른 점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두 영화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영화는 모티브(소재)와 이야기 구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녀는 괴로워”는 스즈키 유미코의 일본 만화<미녀는 괴로워>를 원작으로 하며, “95kg이 넘는 추녀 간나가 성형으로 늘씬한 미녀가 된다”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만화적 설정을 차용합니다. 이러한 허구적인 설정을 토대로 성형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기, 승, 전, 결의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놈 목소리”는 16년 전 있었던 실화 “이형호 유과살해사건”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재구성한 팩션(faction) 영화로써, 실제 사건과 이야기들을 토대로 허구적인 이야기가 혼재된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구성되면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영화는 영화 속 인물들의 캐릭터(성격)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녀는 괴로워”는 할리우드 특수 분장 팀이 매번 4시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 만든 95kg 뚱뚱한 한나(김아중)와 늘씬 48kg의 성형미인 제니(김아중)의 따스하고 소심하고 애교스러운 캐릭터, 냉혹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있는 프로듀서 상준(주진모), 신의 손을 가진 성형의사이한위)나 음반사 사장과 아들(김용건, 성동일)의 현실적이지만 본성은 악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선한 캐릭터들은 영화의 톤을 밝게 만들며 관객들에게 즐겁고 따스한 감정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그놈 목소리”는 유과당환 상우의 아버지 9시 뉴스 앵커 한경배(설경구)의 바르지만 냉정한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현명해보이지만 아들의 유괴로 피폐해지는 모성을 지닌 오지선(김남주), 무능력한 경찰들, 그리고 간교하고 사악한 얼굴 없는 차분한 목소리의 유괴범(강동원)의 악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관객들에게 진지한 슬픈 감정과 현실적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영화는 영화 형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녀는 괴로워”는 안정적이고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과 로맨틱하고 부드럽고 마스한 조명, 배우들의 과장되지만 절제된 연기는 관객에게 마스하고 즐거운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열창하는 한나(김아중)의 3억 원의 비용과 1천여 명의 보조출연자로 화려하고 실감나게 장식한 콘서트 장면은 관객들에게 행복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그놈 목소리”의 카메라 들고 찍기와 극단적인 클로즈업 등 다류적인 카메라 기법은 관객들에게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배우들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인을 통해 영화적 쾌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고정 촬영의 객관적 시선 완성도 높은 조명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유지하며 관객의 감정과 이성애 호소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 영화는 영화 결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녀는 괴로워”의 결말은 늘씬한 미녀 제니(전신성형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나)는 우여곡절 끝에 가수로 성공하고 짝사랑하던 상준과 사랑에 빠지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관객들은 웃다가 울다가 결국 행복한 감정을 안고 영화관을 나섭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한편, “그놈 목소리”의 결말은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자식을 유괴당하고 변사체로 발견하는 부모의 심정을 절절하게 보여주며 결국 상우는 한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실제 범인의 전화 협박 목소리를 들려주고 몽타주를 보여주면서 슬픈 열린 결말로 영화를 끝맺음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반인륜적 범죄자인 실제 유괴범을 잡아야 한다는 감독의 올바른 의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녀는 괴로워”와 “그놈 목소리”는 서로 다른 내용과 형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두 영화는 관객들에게 서로 다른 이성과 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가 요즘 흥행 성적에 부진합니다. 앞으로 영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삶이 느껴지는 진실된 좋은 대중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시(漢詩)에 담긴 부부애

정연봉 _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외래교수

다시 봄이 왔다. 봄은 꽃의 계절, 젊음의 계절, 또 이성지합(二姓之合)의 계절이다. 전보다 결혼연령이 늦어졌고 독신을 고집하는 처녀총각들도 많아졌지만, 예서제서 청첩장이 날아오는 걸 보면 푸릇푸릇 새봄의 기운을 받아 알콩달콩 동지를 트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이봄에 특별히 우리 선인들이 남겨 놓은 한시 속에서 '아름다운 부부애의 풍속도'를 한번 엿보고자 한다.

옛 시인은 봄날의 화사한 신부를 보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여뿐 복사나무 발긋발긋 꽃이 피네
이 천년 시집가면 그 기정에 잘 어울렸네
무성한 복사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이 천년 시집가면 그 실로이 넉넉했네
복사나무 아리따워 그 일이 너를 너를
이 천년 시집가면 그 식구들이 즐겁겠네

(『시경』국풍〈도요(桃夭)〉)

젊고 예쁜 아가씨가 시집가서 잘 적응하고 시집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살림을 충실하게 일구기를 축원하는 노래로서, 복사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잎이 너울거리는 모습을 예쁜 신부와 오버랩시켜 흥을 돋운 매우 탁월한 시이다. 우리 고전속의 최고 인기스타였던 '이도령'과 '정혼향'의 당시 나이는 이팔청춘(二八青春, 16세)이었으며 일찍이 남녀 사이를 경계하는 말로 "남녀친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봄이 되면 가슴이 뛰는 청춘의 이치가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남녀가 만나 짝이 이루는 일이 늘 그리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는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위기도 오는 법이었다.



고려 때 시인 이규보의 작품 중에 신혼부부의 사랑싸움을 형상화한 것이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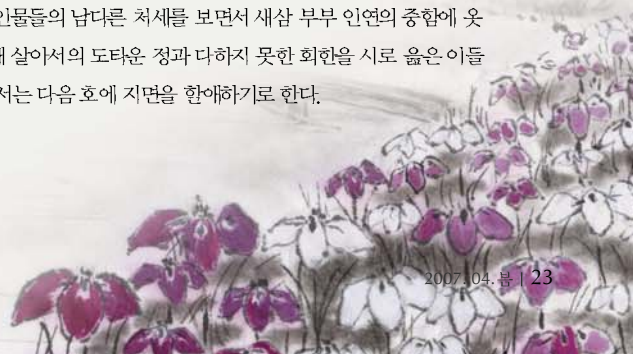
모란이 머글은 이슬 진주알 같아
 이리따운 사람 꺾어 들고 창밖을 지나네
 미소 머글고 신랑에게 묻기를
 “꽃이 예쁜가요? 내 얼굴이 더 예쁜가요?”
 신랑이 “불러 장난 좀 쳐볼래고
 “그야 꽃이 한결 더 중국 편!”
 꽃이 더 낫다는 말에 뽀로통해진 신부
 꽃가지줄 밧아 짓뭇개어 하늘 밧
 “꽃이 전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던면
 도들 밧을 꽃과 함께 주먹시국려.”

(〈절화행(折花行)〉, 이규보(李奎報))

신랑의 장난기어린 농 한 마디에 뽀로통해서 쏘아붙이고 나가는 양징맛은 신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 있다. 그날 밤 신랑이 과연 독수공방을 했는지 아니면 아내를 달래면 만리장성을 쌓았는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일이다.

어리고 순진한 새색씨의 애교 있는 질투는 귀엽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지나친 질투와 강짜가 남정네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나보다. 고려 때의 죽고친현(竹高七賢)의 한 사람이었던 함순(咸純)과 그 부인 민씨의 일화는 요즘 다시 읽어보아도 신선한 감동이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함순이 관동(關東, 지금의 강원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인 민씨가 질투가 대단한 사람인자라, 예쁜 계집종을 남편이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게 바가지줄 굵고 강짜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함순이 “이건 쉬운 일이다” 하고서 읍내 사람이 기르던 소(牛)와 예쁜 계집종을 바꿔버려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 일을 이인로가 듣고 〈친구가 아내의 핍박을 받아 첩을 소와 바꿨다는 것을 듣고(朋友人妻所迫以妾換牛)〉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를 20여년 뒤에 함순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누구냐?”고 물었고, 이인로는 “바로 자넬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함순은 “이런 일이 있었기는 했으나 내 집에서 한때 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처럼 웃음꺼리가 되는 것은 좋지 않군요, 그나저나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선생이 무엇으로 세상에 시명(詩名)을 떨치겠소?” 하였다 한다. 나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나 함순은 질투 많던 부인의 죽음을 시원하게 여기거나 새 여자를 맞이한 기회로 여기지도 않고 홀아비로 살면서 오로지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만년을 보냈으므로 주변에서는 그를 ‘독행군자(篤行君子)’라 불렀다 한다.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니까?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의 납다른 처세를 보면서 새삼 부부 연인의 중합에 웃것을 여민다. 잉꼬처럼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서의 도타운 정과 다하지 못한 회한을 시로 읊은 이들이 많이 있다. 이를 일러 ‘도망시(悼亡詩)’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지면을 할애하기로 한다.



절망의 시학, 행복의 수사학

여성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② - 김승희 편

박연희 _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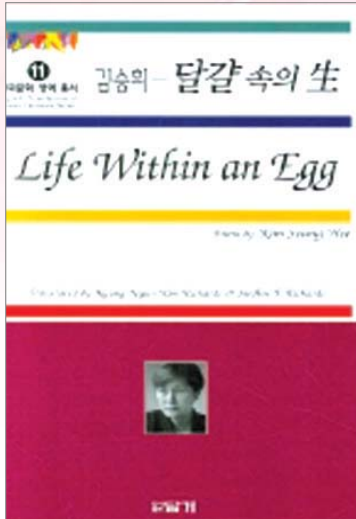


시인 김승희

서점에서 시집 한 권을 손에 쥐었을 때 만약 그 시가 여성 시인이 쓴 시일 경우, 우리는 그 '시'의 이미지나 리듬 자체를 공급해 하기보다 '시인'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예쁘다. 평범하지 않다. 섬세하다. 비현실적이다' 등 <여성 시인>에 대한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지난 번 글에서 이러한 선입견을 따라 <강은교>라는 여성 시인의 문단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여성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팝송과 청바지, 생맥주를 상징하는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로서의 강은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은교 시의 개성은 '여성'으로서의 감수성보다 1970년대의 문화적 세레로부터 기인했던 것이다. 이렇듯 일상성과 사소한 영역에 감춰 있을 것 같은 <여성 시인>의 '私'적인 상징성은 시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公'적인 기호로 전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강은교 이후 세대인 또 한 명의 여성 시인 <김승희>를 소개하려 한다. 김승희는 1952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1973년 <경향신문>으로 등단한 후 1979년에 첫 시집을 낸다. 이후 현재까지 김승희는 '불의 여인', '언어의 테러리스트', '초현실주의 무당'으로 불릴 만큼 강렬한 시를 썼다. '강렬한' 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그가 동시대의 다른 여성 시인들과 달리 사변적이거나 페미니즘적 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과 문명에 대한 비판의 시를 쓰거나(『미완성의 연가』, 1987), 제도와 인습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시적 모험을 감행했다.(『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1992) 그렇지만 더 주목할 것은 아이러니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의 상상력이다.

1980년대는 최루탄, 광주항쟁, 5공화국, 386세대 등 역동적인 혹은 불온한 느낌을 떠올리게 만든다. 김승희는 이 시기를 과감히 '미친 시대'('원손을 위한 협주곡', 1983)로 기록하면서 여성 시인의 새로운 서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랑과 이별의 고백으로서의 서정성이 아닌, 당대의 특수한 경험·감각·사유에 의한 자기지시적인 산물로서의 그것이다. 여기서 '자기'로 표현되는 시구는 '나'의 외부의 시선(時空)과 내부의 시선(視線) 사이에서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김승희 시에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들로 가득한데, 시인은 그에 대해 동시대의 삶에 대한 통찰로써 대답한다. 물음에서 욕망으로,



그리고 의심과 자기응시로 옮겨가면서 김승희는 그 시대, 곧 집단적인 목소리로 던진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려 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정답이 필요없는 '되물음'의 방식을 택한다. 무한한 질문 과정을 통해 김승희는 사소한 대상 하나라도 시대와 삶의 양면성을 들추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의 네 번째 시집, 『달걀 속의 생』(1989)을 읽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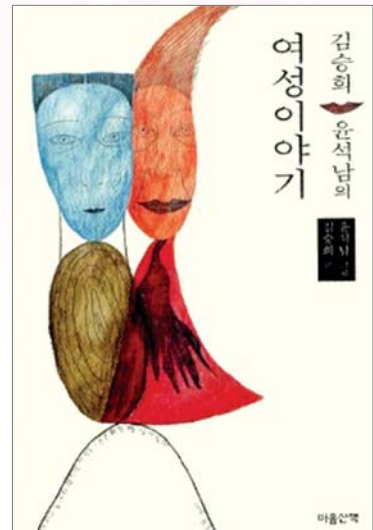
시인이 아이의 도시락 반찬을 만들려고 냉장고를 열다가 문득 맨 윗칸에 들어있는 달걀을 바라보게 된 데에서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은 시작한다. 시인에게 그 달걀은, '삼성 전천후'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달걀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멀리 떠나온 그 달걀'로 해석된다. 그러자 그 순간 '달걀'은 시적 주제로 부상하면서 '부화(孵化)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존재들', '나의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달걀'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껍질을 깨고 나올 알'의 생명성과 '냉장고 속 달걀'의 무생명성을 함께 떠올리며, 그 상반된 운명을 '생'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린 알고 있었, / 우주에 내버려진 하나의 달걀 / 과포일이 / 그대와 나눈 / 어둠 속에 동등 떠났을 / 여왕알은 허술한 알(卵)이
되는 것을 - 『달걀 속의 생』 부분에서

냉장과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 온순히 꽃혀 있네. /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
아무리 비싸 과포도 /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은 순 알은 것 같네 (...) 살아서 불행하
다고 느낀 양속하고 있네 /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 『달걀 속의 생』 부분에서

우주에 내버려지고 어둠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표현되는 '달걀'은, 순전히 냉장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암울하고 절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냉장고 속의 차디찬 공기는 달걀의 새 생명을 사산시키기 때문이다. 피스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소진시키는 냉혹한 '냉장고'를 <곧바로> '암울한 1980년대'로 등지시켜 '재미없게' 시를 읽든 안 읽든, 이 냉장고 속 달걀은 부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깨어져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도 없게 될,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여성 시인의 시를 읽을 때 '냉장고와 달걀'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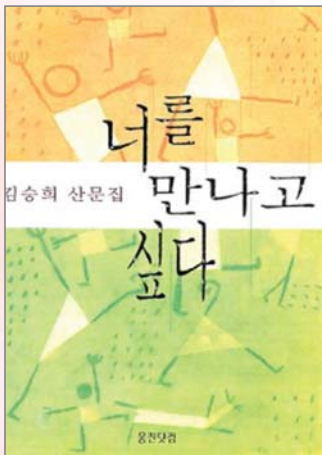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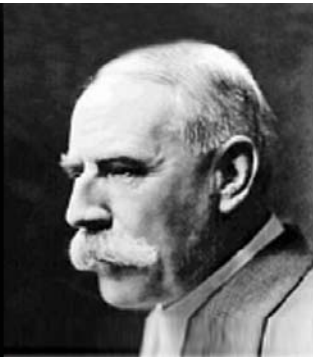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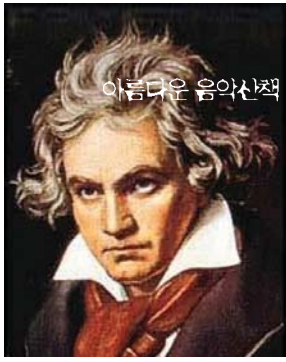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소재가 어느 순간 바로 우리 자신으로 전이되어, 비장한 생 등의 상징으로 공명한다.

로치고 싶고 / 깨치고 싶고 / 사람의 얼굴이 동물에게 감동처럼 돼지기를 / 기다려. 배꼽 같은 서늘이 / 노를 저우리를 띄워 치우. / 천사우리를 띄워 치우. / 아, 그 안에서 因에서 果를 얻어서는 / 어떻게 같은 행명을 기다려. / 고통을 보면 / 눈물이 어리지. / 아, 저렇게 未御故의 절망 우에게서 / 꿈
우를 사랑! - 『달걀 속의 생5』 부분에서

자유와 억압을 동시에 감지하는 시인은,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억압이라고 당연히 말하지 않는다. 다만 양가적인 세상의 원리를 ‘달걀’이라는 1인 속의 생으로 전달한 뿐이다. 위의 연작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절벽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을 축조해낸다. 여기에서 김승희라는 시인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變化가 불가능한 달걀의 상태, 차디찬 냉장고와 같은 인생의 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생에 대하여 시인은 ‘末’라는 희망을 남긴 것이다. 해방된다거나 해방되지 못한다는 식의 석부른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아직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아슬아슬한 미완의 이미지로부터 김승희 특유의 상상력이 발산된다. 냉혹함을 절망과 희망으로 자유자재로 변모시켜 내는 발랄한 상상력. 이것이 <김승희>라는 여성 시인의 시를 읽는 독법이 된다.

언젠가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승희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달걀 속에서 꿈꾸는 사람이죠. 자기 존재의 껍질을 완전히 떠날 수 없지만 그 껍질의 의미들을 검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흰자와 노른자가 합쳐져 언젠가 눈부시게 새로 태어날 것을 꿈꾸는 그런 몽상가가 시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조금은 리얼리스트이고 또 조금은 몽상가인, 다시 말하면 산초 판자와 동키호테가 한 몸에 합쳐진 삼쌍둥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짐작할 수 있듯, 김승희는 세상과 생활 속에 이미 진입하여 ‘절망의 시’를 내뱉으면서, 그 일상의 굴레에서 이탈하는 방법을 ‘행복의 수사’로 비약시키는 여성 시인이다. 날카로운 비판력과 아이러니한 몽상의 순례는 앞으로로도 계속될 것이다.





봄을 나타내는 음악들

오영걸 _ 논문문화 명예기자

회색빛 도시의 삭막함을 감추어 주던 어둠이 물러가고, 어슴프레한 주변이 봄스레하게 얼굴을 내밀 때,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삶의 풍경을 스케치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 긴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는 목련, 농염한 손짓으로 못사람의 가슴을 유혹하는 단풍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곳엔 연약하지만 자기만의 색채를 띤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땅 속 깊이 생명을 숨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니 법정스님의 글이 새삼 떠오릅니다.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 오지않 삶의 봄은 만들어야
 오는 것입니다 /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아니라 /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글처럼 자신의 봄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의 봄을 나타내는 음악들을 감상하며 맘껏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봄을 나타내는 음악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1악장, 비발디의 4계 중 봄 1악장,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위풍당당 행진곡, 모짜르트의 소아곡 1악장,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드뷔시의 아리베스크,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4악장과 가곡 들장미, 오펜바흐의 뱃노래, 요한 스트리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와 트리치 트라쉬 폴카, 스트리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루빈스타인의 멜로디 F장조,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와 무언가 중 봄의 노래,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운 로스마린 등이 있습니다.

Salut D'amour

Transcribed for solo guitar
by Jubing Kristianto

Edward Elgar (1857 - 1934)



장님이 더듬은 코끼리의 나라 - 인도①

임채학 _ 논문문화원 한도사연구위원

인도!

1인당 국민소득 710불의 가난한 나라로, 전체 11억 인구의 27%인 3억이 극빈층인 나라. 도시의 거리와 공원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도로는 마차, Rickshaw, 버스 등의 온갖 차량이 인간들과 소, 가, 돼지들과 뒤엉켜 질서없이 뱅뱅거리며 두쭉박쭉인 나라. 어딜 가나 공원과 도로 바닥에는 한뼘은 빈민들이 잔을 치고, 여행자들에게는 여름날의 파리떼처럼 걸인들이 들끓는 나라.

인도!

수학과 물리학, 철학 등 기초과학과 인문과학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학계를 리드하면서 노벨상 수상자 6명을 배출하였고, 미국 내 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NASA 연구원의 15~30%를,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참단인 나라. 인더스문명을 꽃피워 놓고, 인류 4대 종교 중 힌두교와 불교의 2개 종교가 발생된 나라. 인간의 본성을 상탈한 지구 물질문명에 짓눌려 쪼그라지고 외로워진 현대의 지구인들이 영혼의 휴식을 위하여 찾아드는 곳.

위의 두 인도가 다 인도이다. 양 극의 시이가 너무 멀어, 한 개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으니, 아랑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나라다. 공간적으로 광대하고, 시간적으로 유구하고, 그 속에서 너무도 다양하고 뿌리 깊은 문화를 생성해 낸 코끼리처럼 큰 나라. 그래서 이방인 여행자들은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가 더듬은 것이 코끼리의 꼬를 인지 발가락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햄릿의 고민 - 대표적 대중교통인 립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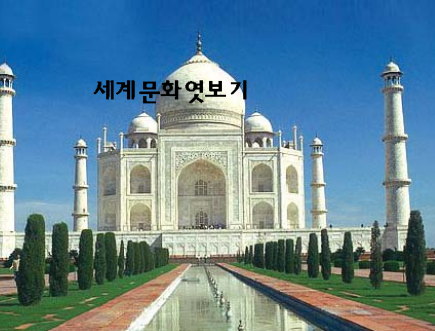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1일, 밤 열시쯤 도착한 수도 델리공항 로비는 침침하고, 우중충했다. 뉴델리 시내로 가는 길, 혼잡하고 경음기로 시끄러운 도로를 운전 하던 택시 기사가 가끔씩 창밖으로 침을 뱉는데 어안이 병병하다. 새빨간 침이 양도 염청나다. 마치, 말기 폐병환자가 핏덩이를 토해 내는 것 같다. 인도인들은 '뽀' 이라는 씹는 담배를 즐기는데, 그것을 씹으면 이빨이고 잇몸이고 어떻게 빨갛게 된다.

도시에서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사이클립샤, 오토립샤, 버스, 택시 등이 있다. 사이클립샤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개조하여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오토립샤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이다. 립샤 운전수를 립샤왈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인도인들처럼 순박하고, 친절하고, 명랑하여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정열적인 제스처를 연출하며 승객을 심심치 않게 해 준다. 그러나 이곳도 사람 사는 동네인지라, 가끔은 외국인 여행자가 마음씨 좋은 자선사업가로만 보여, 관행 요금의 2~3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여행자들은 립샤를 타느냐 마느냐로 햄릿의 고민을 하기도 한다.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매우 저렴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인데, 비쩍 마른 현지인들이 뼈가 앙상한 다리로 힘겹게 페달을 저어 가는 것을 뒷자리에 왕자처럼 앉아유유자적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다. 그나마 체중이 60Kg이 채 안 되는 나는 고품질의 손님이다. 100Kg은 실히 나갈 저구의 서양인이 부인과 동반하여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내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다. 어쨌거나, 그들의 실정을 알게 된 후, 나는 적극적으로 립샤를 이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립샤왈라들은 극빈층으로, 집도 없이 도로 바닥에 살며, 립샤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 페달을 밟는 육체의 힘듦보다는 저녁에 처자식에게 돌아가면서 동전 몇 개 더 들고 들어가는 것이 행복감의 무게가 더 클 것이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로움 - 기차여행

다른 육상 교통수단에 비하여 인도의 철도는 수준이 높다. 넓은 대륙에 선로망이 가로 세로로 잘 짜여져 있다. 운임 체계도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철학이 잘 반영되어 부유층에게 비싸게 받아 빈민층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 5개의 등급별로 매 등급마다 운임액의 차이가 두배 이상 난다. 예를 들어 1000Km를 기준으로 운임을 비교해 보면, 넷째 등급으로, 내가 장거리 이동시에 애용하던 2등 열차 침대칸이 157루피(3800원)인데, 첫 등급의 특급열차는 1334루피이고, 다섯째 등급인 2등열차 좌석칸은 67루피(1600원)이다.



인도의 열차는 정시운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당연한 것처럼 한 시간도, 세시간도 지연된다. 언제나 시간을 못 맞추니, 속스러워서인지 도착역 안내방송도 없다.

‘하리드와르’에서 ‘가야’로 가던 길, 26시간을 타고 가는 여정의 열차는 전날 저녁에 중간 정차역을 정시보다 한 시간 이상 늦게 운행이 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가야역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니 새벽 3시 20분경. 두시 반경에 깨면 넉넉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다. 잠결에 기차가 서고, 차창 밖으로 들리는 짜이(우유로 만드는 인도의 대중적인 차) 장수의 소리를 듣고 시계를 꺼내보니 1시 25분. 안심하고 침낭 속에서 몸을 뒤척여 눕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통로를 지나 가는 사람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가야’라고 한다. “가야?” 되물음에 “예스, 가야!”. 불벼락에 맞은 사람처럼 뒹겨 일어나 플랫폼으로 뛰어 나와 보니 전광판에 선명하게도 ‘가야’다. 기차가 급방이라도 출발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되는데로 배낭을 챙기고, 침낭은 말지도 못 한 채 바닥에 질질 끌어 기차에서 내렸다. 땀소사! 지연은커녕 정시운행보다도 한 시간을 ‘일찍’ 도착하다니!

이방인들이 놀라게 되는 또 하나가 대합실 풍경이다. 야간의 대합실 바닥은 냉마를 걸친 빈민과 걸인들로 가득 찬다. 사람만이 아니고 소들도 그 큰 덩치를 산처럼 누이고 있는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떠돌이 개들도 들어오고, 돼지들도 잠자리를 같이 한다. 11억 인구의 30%가 극빈층으로, 물질적으로는 같이 누운 소나 개, 돼지보다 더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을 대합

실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으리라.

스무 시간, 서른 시간을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북인도의 광활한 대평원, 아열대의 짙은 수림과, 푸른 보리밭, 샛노란 유채 밭 사이로 원숭이가 무리지어 뛰놀고, 수컷 공작새는 대어섯머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위세를 과시하고, 아침이면 동쪽 창 밖으로 지평선의 황홀한 해오름을 보고, 저녁이면 서쪽 지평선의 숙연한 일몰을 보면서 앞자리의 인도인들과 손짓 발짓을 곁들여 나누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기차 여행은 인도 여행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빈민 그리고 걸인들

인도에 도착한 다음날, 델리 시내 중심에 있는 고성 ‘달길라’와 회교사원 ‘자마 마스지드’를 둘러보았다. 먼저 간 아내를 위하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즈마할’을 세운 17세기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에 의해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델리의 도심 한 가운데 높직히 올라앉은 ‘자마 마스지드’는 바닥을 대리석으로 칸 엄청나게 넓은



내부 예배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모스크는 인도 최대를 자랑한다.

인도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공원과 도로상에 빈민과 걸인들이 살고 있으나, '자마 마스지드' 주변과 진입로 등에는 특히 많았다. 가장은 돈 벌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엄마와 아이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비나 추위를 피한 시설도, 식거나 여벌의 옷 등 일체의 살림살이가 없이, 가진 것은 몸뚱아리 외에는 그 위에 대강 걸친 넝마뿐.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낳고,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지?

어미 하나를 중심으로 절망줄망한 어린것 셋이 둘러앉아 있는 일가족을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비스듬히 앉아 한 시간이 넘게 훑쳐보고 있었다. 눈물이 흐른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그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곳까지 날아와 여유를 부리고 있는 나는 과연 그들보다 행복하며, 그럴 자격은 있는 것인가? 마음 밑바닥에서 치밀고 올라오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그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럽다. 대책 없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그들의 큰 눈망울은 내 영혼에 불안두가 되어 지워지지 않을 화인(火印)으로 남는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는 길에 또 다가와 "바바 박시시!" 하며 손을 내미는 아기 안은 여인 두 달 가까이 인도 대륙을 떠돌면서 수없이 듣게 되는 이 말은 "아저씨 동냥좀!"이다. 여인에게 동전을 건네주면서 박시시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첫째, 박시시는 하는 것으로 하자.

둘째, 매일 아침 동전을 바꾸어 가지고 다니자. 한국에서는, 나는 특별한 경우 이와에는 거의 동냥을 주지 않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일할 의지만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이 인도에서 저 많은 빈곤층에게는 아예 비빌 언덕이 없어 보인다.

인도의 어디를 가든지 유명 관광지에는 걸인이 많고, 걸인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동전 교환상이 있다. 1루피 짜리 동전 아홉 개를 종이에 말아 좌판에 늘어놓고, 10루피 지폐와 바꿔 준다. 그들만의 박시시 문화가 아닐 수 없다.

→이하의 이야기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논산의 선사 유적지

강용은 노산문화 명예기자

고인들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무덤의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덤의 크기로 지배자들의 위계질서를 알 수 있다. 고인돌 무덤을 가진 자는 많은 노동력과 정치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1의 돌을 끄는데는 10명정도의 인력이 동원 된다. 강화도 부근리의 고인돌은 덮개 무게는 $109t \times 10 = 1,090$ 명 동원된 인원에 가구당 5명을 계산하면 당시 사회의 사는 정도를 알수가 있다.

고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법 큰 공동의 사회가 존재하였음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들은 고창의 운곡리 고인들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 고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고인들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지만 요동반도 석봉산에는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잘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요동반도와 한반도 전체를 통털어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고인들이다.

우리 고장 논산에는 양촌면 신기리, 성동면 원봉리, 연산면 표정리에 고인들이 있다. 성동면 원봉리를 제외하고는 지표를 통해 조사된 것이다. 고인들은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었는데 남북 학자들이 교류 하면서 나라가 갈라진 것도 슬픈 일인데 고인들 이름까지 남북으로 나뉘어서야 되겠느냐며 탁자식과 바둑판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다. 양촌의 고인들은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고인들군이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고인들군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도에 조사된 고인들 2기는 남북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데 덮개들은 길이가 각각 3.1m, 2.3m 정도이고 그 아래에 장축이 남북 방향인 돌밭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돌방을 판적으로 지상에 세우고 그 위에 덮개들을 올린 북방식 고인돌이다. 유물로는 그 중 한 돌방에서 토기 1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청동기 시대였지만 청동이 귀하였기 때문에 마제 석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양촌 신기리 고인돌은 문서에는 15기 정도로 알려졌는데 찾아보니 13기였다. 논산천을 따라 올라 가면 찾으면 더 있지 않을까? 신기리의 고인돌들은 번성양으로 된 것도 있었다. 논산천을 거슬러 올라 가면서 고인돌을 가져온 곳도 혹시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고인들이 놓여 있는 위치를 반호로 표시해 보니 북두칠성 모양이 나왔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은 했지만 어패류를 먹어야 하므로 주거지역이 하천가에 많았다. 이웃하는 부여에는 7~8곳 정도, 충화에 가장 많은데 20기 정도가 늘어져 있다. 고인들의 유적지 유물로 보아 논산 지역은 니즈막한 구릉과 아산들과 하천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생활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몇년전에 가보았을 때는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뭇잎과 풀에 덮여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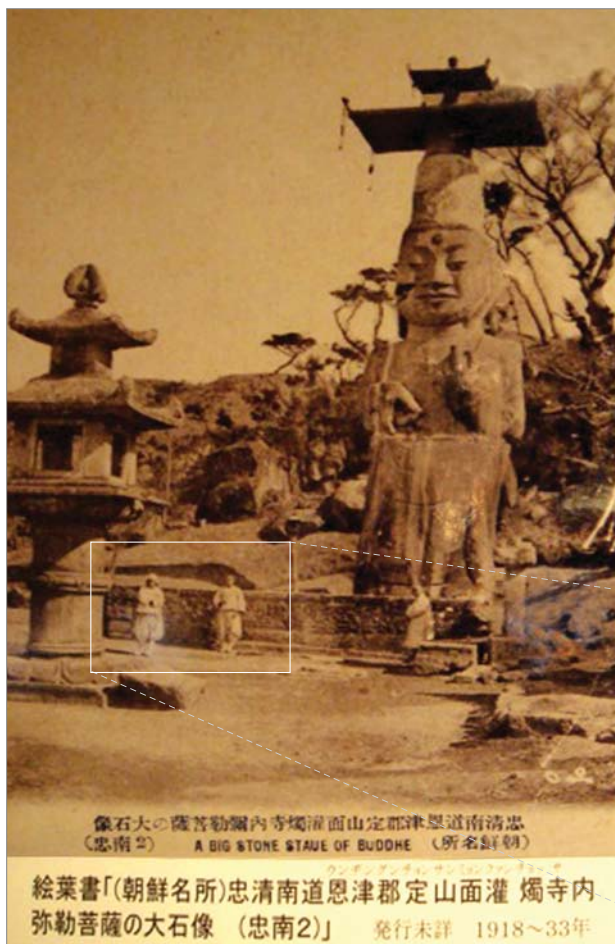
논산문화자료발굴

논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관촉사 은진미륵과 주변 모습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가 발굴되었다. 현재 일본 나고야시의 나고야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자료는 일제 강점기인 1918년에서 1933년 사이에 만들어진 우편엽서로 지난 3월 14

일 평화통일 한국지도자 국제세미나 참석차 이곳을 방문한 논산문화원 박응진 원장과 동행한 송영철 문화원 이사가 발견하여 본지를 통해 처음 공개하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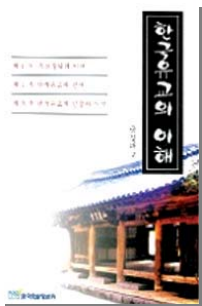
이 우편엽서에는 은진미륵불의 모습과 그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순박하지만 신심이 깊은 전형적인 농촌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된다. 미륵불상의 뒤편으로 보이는 산자락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 밋밋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엽서의 하단에는 은진미륵의 주소가 “충청남도 은진군 정산면”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원 향토사 연구위원 류제협씨에 따르면 논산의 옛 주소에 정산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논산문화원에서는 은진미륵의 올바른 주소를 엽서에 표기하여 줄 것을 나고야성 박물관 당국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좌측 우편엽서에 있는 주민 모습을 확대한 사진

한국유교의 이해



김정태 지음 / 한국학술정보 펴냄

논산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핵심은 유교문화이다. 논산에는 조선 예학의 태두인 사계 김장생과 기호학파의 거두 명재 윤증의 학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교는 무엇인가? 유교의 어떤 힘이 조선 전체를 관통하면서 역사상 가장 오랜 왕조를 건설해 낼 수 있었는가? 저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왠지 모를 어려움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유교 문화를 다시 되돌아보고 유교문화의 맑고 시원한 물줄기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유교문화의 모습을 종교적 관점과 삶과 규범, 그리고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실천 등을 통해 점검한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상체제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과 가족의식을 재조명하고 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유교사상의 전체와 가닥을 도학사상과 실학을 통해 가능해 보았고 3부에서는 여러 도학자나 실학자들과의 짧은 대화를 시도해보고, 특히 유학자로서는 전혀 생소해 보이는 충무공 이순신의 삶을 통해 유교정신의 구체적인 발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랜 물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술바람같은 책이다.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



한도현 외 지음/ 청계 펴냄

조선시대 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쟁송(爭訟)과 다툼, 즉 사회와 당쟁의 바탕에는 늘 예(禮)와 관련된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특히 임진란을 겪고 난 뒤의 조선 사회는 일본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급격히 진행된 사회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종래 사농공상(士農工商)과 양반 상민의 신분계층이 붕괴되어 평민의식이 신장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예학의 수립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禮)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종래의 관습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이 책은 유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항목인 예에 대한 현대적, 학문적 반성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전통적인 유교 전공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대적인 예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필자들은 [소학]과 [주자기려]를 중심으로 유교의 예와 미시적 권력관계를 들여다보며, 여성 교육을 중심으로 여성과 예의 관계를 조명한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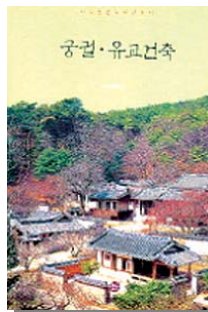
이동인 외 지음 / 백산서당 펴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과 아울러 조선 유학의 쌍벽으로 일컬어진 충청의 유학적 전통을 심도있게 연구한 연구 보고서이다. 충청 유학의 본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책이다. 그러기에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독자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필자들은 이 책에서 충청지역의 예론(禮論)과 예송(禮訟)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은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중심지로 정밀한 예학이론을 배출한 곳이고 예송의 중심인물 중 상당수가 활약한 곳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예학을 말할 때 이곳의 학문적 전통을 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흔히 알고 있듯 예론과 예송이 한발 상복(喪服)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따위의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상징하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예학의 근본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학의 생성과 확산에 기여한 충청지역의 교육 사상과 민중교화의 기능을 수행한 교육기관을 소개하면서 충청 유학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궁궐 유교건축



이상해 지음/ 솔 펴냄

우리 전통 건축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을 찾기 위해 나선 발걸음이 머무는 곳의 대부분은 궁궐이나 유교건축물이다. 그리고 사찰과 관련된 불교유적이 있다. 궁궐은 당시 지배층의 철학과 우주관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와 덕수궁 등의 궁궐 건물들이 보여주는 개별적인 건물의 아름다움과 이들 전각들의 배치가 빚어내는 공동체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문화재들이다.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떤 왕조보다도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었던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을 보여주는 유교 건축물은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어 조선왕조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건축물의 대표는 서원과 향교이다. 서울의 성균관을 위시하여 전국에 산재한 향교와 서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으며 동시에 유교이념을 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조를 이끌어간 정신적 힘의 원천이었다. 이 책은 조선의 통치이념이었던 유교적 사상체계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향교와 서원, 그리고 이들의 집약체인 궁궐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건축이 단순히 구조물을 쌓아 공간을 분할하는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기와 한 장, 이음새 한 곳에까지 혼과 백을 불어넣는 철학적 구조물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신년교례회(1월 2일)

논산시 기관 및 단체장 문화계 인사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해년 안녕과 행복을 서로 기원하는 신년교례회가 개최되었다.



에덴보육원생 겨울 방학학습 여행(2월 1일)

연무 에덴보육원(원장 노동익) 100여명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강원도 설악산 일대를 다녀왔으며 논산문화원(원장 박응진)은 자선하에 이어 버스비를 지원하여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왔다.



5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2월 2일)

논산문화원 창립 50주년(11월 14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행사 준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논산문화 발전세미나, 창립기념 음악회, 공식행사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문화원 충남지회 정기총회(2월 12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박응진)는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박응진 논산문화원장이 제46대 문화원 도지회장에 연임되었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 초청 신년 간담회도 있었다.



제51차 정기총회(2월 27일)

박응진 문화원장,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시,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사업과 예산이 승인되었고, 유영상 회원이 감사에 선임되었다.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축제(3월 3일)

논산천 둔치에 700여명의 시민이 찾은 가운데 읍면동 줄다리기, 제기차기 대회 및 가족연날리기 대회가 열렸고 국악공연, 통일가원연날리기,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체험 행사와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개최 되었다.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3월 15일)

논산문화원(원장 박응진)은 논산부청초 교직원 42명을 대상으로 쌍계사, 양촌면 신기리 지석묘를 답사하는 등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일깨우는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였다.



제6회 논산시민사랑연주회(3월 17일)

논산문화원(원장 박응진)이 주최하고 KB관악합주단(단장 박노선)이 주관한 논산시민사랑연주회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많은 시민이 관람한 가운데 열렸다.



교통캠페인송 음악회(2월 27일)

모범운전자', 원더풀코리아, 작사 작곡(이재석) 1주년 후원 음악회가 nonsan문화예술 화관 대공연장에서 이주성씨의 사회로 많은 시민이 관람한 가운데 열렸다.



nonsan시상송인회 발족(3월 9일)

nonsan시상송인회가 화진산신평(이사장 김선우) 2층 회의실에서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초대 회장에 이선범 nonsan고교 교감을 추대하였다. 월 2회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7시부터 시에 대한 이해와 낭송법 등을 나영숙 시상송가로부터 배우게 된다.



한국난전사회(3월 10일)

논산난우회(회장 강태규)가 주최하고 논산시가 후원한 제4회 한국춘란전시회가 논산문화예술회 관 대전사실에서 2일간 전시되어 난 애호가를 비롯한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발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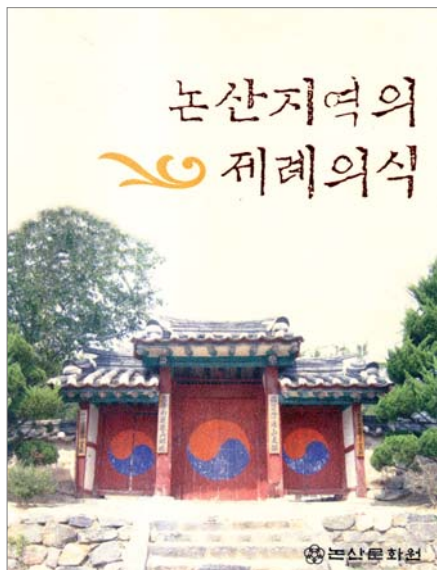


충남교향악단 연주회(3월 20일)

“논산시민을 위한 봄에 떠나는 클래식 여행”이라는 주제로 충남교향악단 지역순회 연주회가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시민에게 선사하였다.

『논산지역의 제례의식』발간에 부쳐

김 문 준 _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논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문혀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하여 갖고 닦아 세상에 알리는 일일 하고 있는 논산문화원에서는 논산문화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논산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산인 유명 종가의 제례에 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 펴냈다.

이 책은 논산지역에 세거하는 명문 문중 종가의 제례 시행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통 제례의식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제례의 원형을 정리하는 한편, 변화해 가는 제례의식의 원형과 변화 양상에 관한 조사연구가 시급하다.

논산지역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기호예학의 1번지이며 유교의 정신적 뿌리를 낳은 고향이다. 연산의 돈암서원과 노성의 노강서원은 그 중심에 서며, 사계 김장생·신독재 김집·우암 송시열·동춘당 송준길·명재 윤증 등 걸출한 인물을 낳은 기호사림의 본고장이다. 특히,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의 연산 지역, 명재 윤증의

노성 지역은 그의 후학들이 정신문화와 유교적 사회이념을 실천했던 지역으로서 전통제례의 원형과 변화 양상을 비교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논산지역 명문종가의 불천위제인 김겸광 불천위제, 김국광 불천위제, 김장생 불천위제, 김준영 불천위제, 김집 불천위제, 민발 불천위제, 이상 영당제, 윤증가 기제, 윤황 불천위제, 익안대군 불천위제 등 논산지역의 명문가의 불천위제와 기제, 그리고 영당제, 시제 등을 조사하였고, 제례 현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제례칠차, 제주와 제사 참여자의 범위, 가묘(사당) 존속 여부, 재실존속 여부, 제사장소, 제사시간, 부녀자 참여 여부, 독축, 참여인원 등을 조사하여정리했다.

이 책에 담은 논산지역의 여러 문중 종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례의 형식과 내용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학파의 예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충남의 기호예학, 나아가 전통적인 한국제례의 현재 상황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이책은 건양대학교 김문준교수와 향토사연구가인 류제협논산문화원 이사, 이준창 논산문화원 사무국장이 자료조사와 사진촬영, 집필에 참여하였다.

논산사랑 50년 문화사랑 50년!

논산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 슬로건, 로고 제작



논산사랑50년 문화사랑50년!

2007년은 논산문화원이 창립, 개원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1957년 11월 4일 논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논산군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당시 논산 문화계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문화원을 창립한 이래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충청남도에서는 공주문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논산문화원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슬로건과 로고 역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논산사랑 50년, 문화사랑 50년'은 논산 문화원이 지난 50년동안 한결같이 논산 지역문화를 사랑하고 논산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꾸준한 정신을 담았으며, 로고는 '50'을 주제로 하면서 논산문화에 대한 열정을 붉은 색으로 표현하고, 밝게 빛나는 태양을 형상화하여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논산문화의 자력을 나타내었다.

이 슬로건과 로고를 통해 논산문화원은 더욱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논산시 의회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승인

금년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논산문화원에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일이 더하여졌다. 지난 3월 13일 열린 제 93 회 논산시 의회 임시회가 논산시장의 발의한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결, 승인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충남도내 시군 가운데는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10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논산문화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화원활동에 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1957년 11월 14일에 설립되어 50년동안 논산 시민과 함께 논산시의 문화적 역량을 보존, 개발, 계승하고 논산시민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논산문화원은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市)로부터 보조받아 왔다. 그러나 문화원활동에 대한 지원이 시회단체 보조금 속에 편성되는 예산 가운데 일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이 안정적이지 못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존, 전승 및 산양 등 고유의 사업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원활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16일 문화원 육성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 뒤 12월 16일 논산시장 발의로 금년 1월 19일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3월 13일 제93 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어 승인되었다.

주요 골자로 논산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앞으로 문화원 육성 조례안 공포 이후에 논산시의 본예산에 편입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의 활성화로 논산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논산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논산문화의 육성을 위해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대중화, 일반화, 보편화를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문단

시

탐정호/박허

수필

독백 /문화봉

개태사지를 둘러보고/양해수

반야산을 산책하며/이근하

별을 먹고 사는 일곱 아이야/윤운순

은진미륵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정경일

21세기 임상옥 상단“총각네 야채가게”/김선일

우유 빛 세상을 꿈꾸며..... /이찬우

탐정호

박 허 _ 논산문화원 회원

깊은 산
물을 모아
황산벌 적시나?

들녘의
뜻을 모아
하늘에 기원하나?

탐정호
푸른물결
하늘 끝에 닿았고

탐정호
푸른물결
온 들녘에 넘친다.

독백

문희봉 _ 수필가,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교장

누군가에게 얘기를 건네고 싶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또 잠이 깨었다. 이상체질인가 커피만 마시면 잠을 설친다. 귀뚜라미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온다. 가을을 미리 알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이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수면 시간은 짧아지고 사색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요즘이 사색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다.

사방은 고즈넉하다. 모두가 잠들었다. 백열등도 형광등도 모두 잠들었다. 아내가 잠을 깰까 봐 살그머니 응접실로 나왔다.

자꾸만 꿈에 있었던 사건이 뒷머리를 친다. 평상시에 남과의 대화에 인색하던 직장 동료가 나에게 욕을 하며 대든 것이다.

“네가 뭐냐?”

“난 체 말라고.”

“네가 뭘 잘 한다고.”

“....”

등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시간조차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혼자 말하였다. 얼마마한 시간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마에선 진땀이 흐르고 안면 근육에선 경련이 일어났다. 분했다. 나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못하는 위인이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이건 분명 홍몽입에 틀림없다. 왜 이런 꿈이 꾸어졌는지 모르겠다. 흔히 사람들은 홍몽은 남에게 말해서 액을 팔고 길몽은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들 생각한다.

이튿날 나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주 좋은 꿈이라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대단히 좋은 꿈이란단. 남에게 욕을 먹은 것은 욕을 먹은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은 것이란단. 좋다니깐 괜히 기분이 좋다.

내일 인사 발령이 있는 날인데 좋은 소식이라도 날아들 것인가? 기약도 없는 통근이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모두가 근거리 근무의 꿈을 안고 있다.

어느 가정이고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드물다. 승진, 취직, 입시, 건강, 우애 등 걱정거리는 다양하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자신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심 중 오류는 패배자가 되곤 한다. 굳게 다문 입술에선 무쇠라도 녹일 것 같은 침묵이 흐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진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든가 결단을 내리기 힘들 때, 미로에서 방황할 때 인간은 신비한 힘에 의지하기를 좋아한다. 심지어는 벗어지는 신끈에도 길흉을 건다. 그리하여 신끈이 없어지면 재수가 없고, 찾히지면 재수가 좋다든가 하는 미신 같은 금기를 신봉하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삼복더위도 아랑곳 않고 맑은 일에 충실하며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거뜰히 해 내는 사람들이 많다.

오뎅이처럼 역경을 딛고 칠전팔기하는 내 이웃들, 좌절을 딛고 의지로 우뚝 서는 내 이웃들이 있다.

아마도 인간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동물인지도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일을 성취해 낸 당사자의 마음이야 오죽 좋을까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쓰는 축하의 시선은 의외로 차갑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월계관을 쓴 이웃에게 보내는 환희의 미소는 먼 데 사람일수록 밝다.

이에 비해 가까운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어두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 이상할 밖에.

옛말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는데 이상한 일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진실이던가. 동고동락, 상부상조라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닌가 말이다.

한강에서 교각을 부수고 강물로 떨어진 승용차 속, 생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는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어 극적으로 구조했다는 미담은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주었다.

딸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지자 아버지가 뛰어들었고, 그 광경을 본 낯선 이웃이 그들 부녀를 구하러 뛰어들어 결국 세 사람 모두가 익사했다는 이야기도 내 가슴을 울렸었다.

칭찬에 인색하고 찬사에 인색한 것이 우리 인간인 모양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정을 맘껏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나는 사람이 그림다. 오늘 사귀고 내일 떨어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림다.

죽마고우, 지기지우를 한신씩 버리듯 내팽개치는 요즘 세태를 보는 눈이 썰렁하다. 이 세상에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 중 내면에 있는 고민까지 확 털어 놓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이란 고독한 존재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위선을 부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인심을 누가 모르랴하는 나만이라도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가 되리라 마음 먹는다.

사람이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면 신임을 잃는다. 취했을 때나 맨 정신일 때나 한번 뺏은 말에 대해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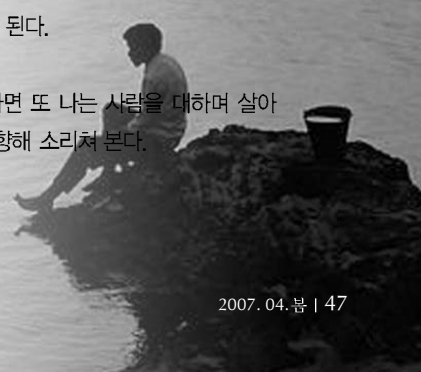
“이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인사를 듣고 싶은 것이다. 언제나 고독한 시간을 웅변으로 메우고 싶다.

인간은 정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러기에 여러 면에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도 국가도 장래는 희망적일 것이다.

이 밤의 침묵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삼경이 지나면 사경이 온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나는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한다. 고독한 인생도 그리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영원한 고독은 없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본다.



개태사지를 둘러보고

양해수_육군 중령, 육군본부 근무

우리나라는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반도적 위치 때문에 유난히 외침이 많았다. 그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에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찰들이 소실되거나 유적의 훼손을 불러왔다.

안타까운 사찰 중에서도 미륵사와 황룡사가 가장 먼저 눈에 든다. 전북 익산 미륵사와 경북 경주 황룡사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한반도 고대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양대 사찰로 꼽힌다. 사적 제6호 황룡사지는 복원이 추진 중이며, 발굴 때 사용했던 시설물이 발굴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쉬운 면은 있지만, 복원을 위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노력은 가히 으뜸이다.

익산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미륵사지 역시 현재 복원이 추진중이며,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무너지는 것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로 발라 놓았다. 2001년부터 해체를 시작하여 아직도 그날그날 해체된 돌을 도표로 그리며 계속 진행 중이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와 전북 남원의 만복사지 역시 옛날 선조의 숨결을 찾아 발굴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일전 개태사지(開泰寺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에 있는 절터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44호이고, 지정면적은 5,412㎡이다. 개태사는 936년에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멸망시킨 뒤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절이다. 즉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개국사찰로서 개태사를 창건한 것이다.

개태사 경역은 크게 두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현재 삼존불의 보호각과 요사채가 있는 지역으로 사찰이



개태사지 석불 입상

운영되는 현재의 개태사 지역이다. 1986년 문화재 보존사업의 하나로 보호각을 보수하던 중 창건 당시의 초석과 기단이 나타나자 석불 보호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형이 낮은 서쪽 부분에서는 초석들이 없어지거나 이등이 심했으나, 동쪽은 온전히 남아 있어 건물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 경역은 이 지역에서 동북으로 약 300m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 유구인데, 이곳이 고려 태조의 진영(眞影)을 모셨던 건물지이다. 현재의 개태사 주변과 윗마을 일대에는 광범위하게 건물의 초석과 기단들이 널려 있어 사역이 원래는 현재의 규모보다 훨씬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진전자리는 두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에서부터 경사면에 축대를 쌓아 기단을 마련한 회랑 같은 유구와 그 위의 평지에 마련한 진전 자리이다. 진전자리 서쪽에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금동대탑(국보 제213호, 사진참조)이 출토되었고, 진전 남쪽에서는 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형 반자(飯子)가 발견되었다. 그 남쪽 길가에는 담장에 걸쳐 개태사지 석조(충청남도 문화

재자료 제274호) 2기가 지하에 묻혀 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석조는 보존을 잘해보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하에 묻혀 있다 한다. 그러나 한 기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찾기가 어렵고, 또 한 기는 주변 가옥의 담장을 처리하면서 시멘트 벽돌 밑에서 훔물스럽게 이를 들어 내놓고 있었다. 마을 초입길로 사용되는 터라 튀어나온 석조는 이내 자동차나 경운기 바퀴에 힘없이 손상되기 십상이었다. 민가의 마당에는 초석들이 널려 있고, 텃밭 모퉁이에도 불상이나 진전의 초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그래도 마을 인심은 후하여 가을 홍시를 수확하던 시골 아낙이 몇 개 먹어보라며 건네주는 감 덕분에 상했던 감정을 달래준다.

영국 노팅검에 가면 의적(義賊) 로빈후드 동상과 박물관이 있는 노팅검 성에 들린다. 해마다 요란한 로빈후드 기념행사를 보러 관광객이 몰리나 그는 전설의 주인공일 뿐이다. 화란의 오슈라는 작은 도시에 「삼총사(三銃士)」의 한사람인 달타니안의 기념비가 있다. 그 역시 알렉산드로 뒤마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베로나의 작은 교회에는 줄리엣의 무덤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글속에서만 살다 죽었지만 어엿이 무덤 관리인이 있고, 배달편지의 답장인이 있다. 분명한 역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씻기기도 하고, 맹랑한 전설도 야기고 키우면 역사와 다름없는 유산거리가 되어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아름답고 굳세게 만든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문화도 똑같은 이치이며,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는 역사를 통하여 이미 고증되었다. 어느 나라는 허구의 전설도 역사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값지게 보존하는 것은 후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여기어진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태사지 주변의 옛 경역을 복원하여 고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관계되는 분들과 기원하여 본다.



금동대탑

반야산을 산책하며

이근하_전 논산시 공무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반야산에 접어드니 솔잎향기가 상쾌한 바람을 타고 가슴에 안겼다. 잠겼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가벼운 걸음으로 올라가는데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단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다. 굽은 길을 돌아서니 앞에서 증풍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인을 남편이 부축하며 정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는데 가슴이 아팠다.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말은 않고 있지만 부부의 평온한 얼굴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소홀했던 지난날을 뉘우치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각오와 부인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부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산책길 중간 중간 나무에 명언을 써 매달아놓았는데 아마도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했으리라. 그중 오르막길 옆에 걸터 놓여 있는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좌우한다'는 글이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을 상기 시켰다.

“어느 부인이 옳지 못한 행동을 자주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기둥에 못을 한 개씩 박기로 했다. 얼마 되지 않아 기둥에는 못이 가득했다. 어느 날 남편은 부인에게 기둥에 박힌 못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못을 한 개씩 박았노라고 하자, 남편은 그때서야 자기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부인은 남편이 옳은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한 개씩 뽑았다. 얼마



되지 않아 기둥의 못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부인은 감격하여 이제 못을 다 뽑았으니 죄책감을 버리라고 말하자 남편은 못자국을 어루 만지며 아니요 아직 멀었소, 나는 당신에게 지은 잘못이 너무나 많은 사람ियो 이 못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 팔각으로 지은 반야정에 도착하니 원로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영배 선생님이 목판에 써 놓은 '새 생명의 아침'이란 시 한 편이 발길을 멈추게 했다.

나의 임종은 오월께 오라 / 엽전이 싫어 낙엽이 싫어 / 푸르거란
문 히고 싶음 / 내 소원 그대로 라경 / 아산국 앞안이 익는 / 오월
의 일 애저 오라 ... 생략 ...

노작가께서 이제 임종을 생각하시다니 마음이 무겁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좋은 글을 남기시길 간절히 빌어본다.

반야정에 오르니 논산시내가 한눈에 쏘옥 들어왔다. 드넓은 평야를 끼고 자리 잡은 풍요롭고도 인심 좋은 도시. 몇 년 사이에 많이도 변했다. 바위산을 연상케 하는 아파트가 단독 주택을 에워 싸고 있고 우회도로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차량들이 쉿쉿 달리고 있다. 인구는 안 는데 아파트 입주자가 다 됐을까? 문득 공연한 걱정까지 해본다. 논산에도 기업체와 관청이 많이 들어와 크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반야정을 내려오니 나라의 번영과 가문의 번성에 공이 많은 분들의 기적비, 동상, 추모비 등이 보였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 어릴 적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다. 과연 그렇게 살아왔을까? 자문해 본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동상 앞을 지나니 '건강 백세는 건강생활 실천에서부터' 의 현수막을 달아놓고 고루 갖춘 운동기구에서 남녀노소 여럿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성인병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 몸과 마음의병을 동시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운동 뿐이라고 했다. 아무쪼록 꾸준히 운동하여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가정생활과 생업에 충실하길 기원한다.

산책로 주변엔 웃는 표정, 화난 표정, 근엄한 표정, 익살스런 표정 등 세속적인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한 장승과 솟대가 많이 세워져있었다. 그중 눈길을 끈 것은 남녀의 은밀한 부분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인도 카주라호 사원에는 사랑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관능미 넘치고 에로틱한 조각사원이 22개나 있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신성한 부분이기애 숭배하는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각한 것이리라.

관측사 옆 계단 입구에 다다르니 우측 산 아래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 상복을 입은 상주가죽이 봉분을 완성하고 묘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성문제를 올리고 있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노라니 제삿날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면서 들려주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한테 학동들이 한문과 예의범절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오전 공부가 끝나자 한 학동이 훈장님을 찾아왔다.

‘오늘이 선친의 제삿날이라 일찍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사 잘 지내거라.’

학동을 보내놓고 나니 훈장님은 문득 제사를 내가 가르친 대로 지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업이 끝나자 한 학동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 몰래 가보라고 시켰다.

그때는 집집마다 나무울타리였고, 마침 여름이라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 울타리 밖에서도 방을 환히 드려다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무 울타리 사이로 제사 지내는 것을 몰래 바라보니, 아랫목 방바닥에 밥과 국은 큰 양푼에, 술은 막걸리로 큰 바가지에, 반찬은 고기와 나물을 양재기, 함치박, 대접 등 큰 그릇에 가득 담아 죽 늘어놓고 넉죽넉죽 절을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학동은 훈장님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훈장님은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학동으로 제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제사를 지낸 학동이 훈장님에게 찾아와 아침식사를 대접한다고 간청해서 따라가 아침상을 받아보니 생각 외로 상차림이 의례에 맞게 차려져 있었다. 그래서 훈장님이 물어보았다.

‘제사도 이렇게 제례에 맞춰 지냈니?’

‘훈장님 죄송합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생업이 노동이기 때문에 평소 밥과 반찬을 많이 잡수셔서 식성에 맞춰 큰 그릇에 담았고, 윗목에 모시는 것이 죄스러워 따듯한 아랫목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학동은 큰 죄나 지은 듯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바로 네가 효자다.’

훈장님은 학동의 참다운 효심을 칭찬해 주었다.”

관촉사 옆 255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거대하면서도 자비롭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석조 미륵보살이 눈에 들어왔다. 서기 1006년에 완성했으니 이제 1000년이 지난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이다. 문득 법정스님의 법어가 생각났다.

‘돈·쾌락·명예·권력을 버리고 욕심 없는 마음, 남을 위하고 베푸는 마음, 매사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이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더불어 논설위원 정진홍 님의 칼럼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엔 해묵어 온 미움과 무관심·오기·원망·분노·다툼·시기·자만·과욕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고스란히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기가 아니며 그릇을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새로운 도전과 알찬 희망을 새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하리라 다짐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 놓은 것일까. 비웠으니 다시 건전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나가자.

이제 봄이 오면 반야산을 아름답게 꾸미던 모든 생명들이 부푼 꿈을 안고 겨울잠에서 깨어나겠지.



별을 먹고 사는 일곱 아이야



윤운순 _ 햇님어린이집 교사

햇살과 바람을 섞어 맑게 흐르던 금강을 건너 출근하던 놀이방은 아침이면 노란차가 도착하고 아이들의 모습보다 먼저 달려오던 웃음소리가, 내게 늘 미소를 짓게 했다.

“선생님”

하고 부르던 네 살의 일곱 아이들은 언제나 나무 그림자 속에 숨은 나를 찾아내는 바람의 명랑함이었다. 그 아이들과 헤어진 후 칠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늘 난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설레임으로 일곱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준표야

응가 한다는 너를 화장실에 데려다 놓고 “다했니?” “아니요.”

두 번을 물어본 후 “그럼 다 하면 선생님 불러요.”

그렇게 교실에 돌아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문득, 화장실에 두고 온 네가 생각나 달려가 보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던 너.

종연아

형과 함께 너를 차에서 내려주면 형은 앞서 달려가지만 너는 뒤돌아서서

“노래방 선생님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었지

민호야

해가 너의 머리 위로 가득히 내리던 아침에 초록 장화를 신고 와서는

“선생님 장화 신고 왔어요.” “그래? 정말 예쁜 초록색 장화구네!”

성재야

동화를 듣다가 졸고 있는 너를 이불위에 눕히면 어김없이 별나라 지도를 그렸던 너

상아야

장난감 정리를 잘하던 너는 “선생님 지저분해요? 내가 다 치울게요.”

규용아

“선생님 비행기 노래 불러요.”

비행기 노래를 부르면 교실은 하늘이 되고, 너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나는 작은 비행기가 되었지

우성아

놀이방에 처음 와서는 “싫어 싫어!” 소리치던 네가 ‘반짝 반짝 작은별..’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내가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불렀던 선생님이

바로 나였던 그때가 나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미루나무처럼 큰, 어설픈 초보 선생님을 잘 따라주던 일곱 아이들은 이젠 능숙하게 내 일을 해나가는 있는 지금의 내게 가끔씩 그리움의 무게를 싣고 다가온다.





은진미륵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문화콘텐츠와 OSMU

정경일 _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

마야부인(摩耶夫人)! 석가모니의 어머니이다.

인도의 작은 부족 샤카족의 왕인 순도다나(淨飯王)의 부인으로 둘 사이의 금슬은 좋았으나 마흔이 넘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 늘 수심에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6개의 뿔을 가진 빛나는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해서 태 안에 드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당시의 풍속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하여 친정인 구리성으로 돌아가던 마야부인은 미처 친정에 이르기 전에 그만 산기를 느껴 가까이 있는 룸비니동산에서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귀한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이 훗날 석가모니가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 마야부인은 아들이 부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아들을 낳은지 7일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마야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에는 부처님도 예외일 수 없음을 생각해 보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실상 세상에는 그 어머니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반야산에는 관촉사 은진미륵이 있다. 논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이 불상은 투박하면서도 인자한 상호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장엄한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불상이다. 관촉사 은진미륵불논산시 관촉동 비로자나불

그런데 앞서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이 은진미륵 불상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을까? 계셨다면 어떤 분이셨을까? 돌을 새겨 만든 불상을 두고 웬 어머니타령이냐고 하겠지만 만물이 모두 어머니로부터 생겨났다면 은진미륵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은 꽤 흥미있는 일이 아닐까?

논산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찾아보니 과연 은진미륵부처님에게도 어머니가 계셨다. 관촉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민가에 작은 불상이 하나 서 있다. 상호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비로자나불로 여겨지는데 오래전부터 논산 주민들은 이 불상이 은진미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은진미륵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였을까? 마야부인에게 쉼도다나(淨飯王)가 있었듯 비로자나불에도 남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상상의 꼬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은진미륵은 외동이었을까? 형제가 있었겠지? 그는 어떤 삶을 살다가 부처가 되었을까? 득도의 길과 험한 과정을 미륵은 어떻게 헤쳐 나왔을까?

논산 인근지역에는 은진미륵불과 유사한 형태의 불상이 여럿 더 있다. 예를 들어 예산 삼교에 있는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의 석조미륵보살입상, 당진 안국사지 삼존 석불입상 등을 거쳐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입상들이 모두 보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불상들의 친족관계를 유추해 낼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대로만 생각하면 이들은 단지 석조불상이면서 단순히 유형적, 형태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있는 불상들이겠지만, 상상과 설화의 세계 속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오래전 세상에서 형제였을 것이다. 그들은 은진미륵의 아우들이었을 것이고 부모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 흩어져 백성들을 교화하고 피안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의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불상 하나와 전해지는 설화 한 토막을 놓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상상의 세계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산업의 기초가 다져진다.

한분의 부처님을 두고 일어나는 이런 문화적 과정을 우리는 문화콘텐츠의 개발과정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라고 부른다. 은진미륵과 그 어머니부처의 설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하나의 문화산업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콘텐츠가 가지는 이런 강점을 일컬어 OSMU(One Source Multi Use)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OSMU를 지향하는 스토리텔링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21세기 임상옥 상단 “총각네 야채가게”

김선일 _ (주)핸디소프트 이사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야채장사 하나로 년 매출 1,200억, 37개의 점포에 직원이 280명으로 성장한 “총각네 야채가게”의 30대 사장, 바로 이영석 대표이다. 나는 처음 이영석 사장을 만났을 때, 운이 좋아서 과일장사로 돈을 많이 벌고, 방송출연을 하여, 본인의 장점을 환상적으로 마케팅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노력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모습, 미래의 비전을 보았기에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성공자인 그를 만날 수 있다.

93년 한강변에서 오징어를 구워파는 일에서 시작하여, 300만원짜리 트럭에 과일 채소를 떠돌아 다니며 판매하기 시작한지 7년만에 그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에 “총각네 야채가게”를 이루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야채와 과일 고르는 법, 신선하게 보관 하는 법, 손님의 시선을 사로 잡는 법등을 몸소 실천하며, 새벽2시 가락시장에서부터 밤 7시까지의 일과를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서비스에도 장인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벽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모습은 차갑고 냉철하기 까지 하다. 단지 고객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5시간동안 그는 많은 과일의 박스를 뜯으며, 맛을 보고 평가 후, 구매한다. 처음에는 상인들로부터 버릇없는 놈이라고 몰매도 맞았으나, 3년이 지나서야 도매상인들도 그의 마음을 이해를 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가게에는 냉동고가 없다. 어떻게 생선가게에 냉동고가 없는지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그는 그날의 제품은 그날 판매하고, 재고 0%에 도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한다. 이것이 이 가게의 고객 만족이며, 고객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녁 6시면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주변 상가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마지막 판매에 도전하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A/S제도를 구축하고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것을 통하여 직원들의 성취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영석 대표

이영석 사장이 말하는 4가지 성공비결이 있다. 첫째 내가 선택한 일을 즐겨라. 신선한 과일 맛을 보기 위하여 술,담배,탄산음료를 일체 먹지 않는다는 그는 정말이지 초심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나태해지고, 흔들릴때는 삭발을 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존재이다. 특히 행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할 때,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두번째는 용기를 갖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성공을 성취하고 싶으나 실천이 부족하여, 또한 꾸준한 노력과 연속성이 없어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만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시키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실천하고 또 실천하라고 한다. 세번째는 모든일에 주인이 되라. 그는 지금 성공자의 모습임에도 사장이 아니라고 한다. 사장이 되는 순간 나는 나태해 지고 자만하고 안주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나는 항상

주인이 되려고 생각 한다”고 말한다. 하여 술선수법하고, 변화하러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 네번째로 즐거운 팀 문화의 창조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사람과 같이 일귀내고 성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내가 즐거워야, 팀이 즐겁고, 그리하여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곧 기업과 개인의 성공의 길에 설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게의 직원들에 가슴에는 커다란 명찰이 있다. 이름:이영석 닉네임:마당쇠 좌우명:마님이 부르는곳은 어디는 달려간다. 이렇게 그의 가게에 서있노라면, 최상의 제품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마치 흐르는 물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총각네 야채가게”의 이영석 사장처럼, 내가 선택한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용기를 내어 항상 실천하고, 주인이 되고저 노력하며, 즐거운 팀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성공으로 한발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역시 많은 결심을 하고 계획하지만,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일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시간 부터 새로운 시작, 실천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 하고저 한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하고있는 모습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모습



우유 빛 세상을 꿈꾸며.....

이찬우_논산시청 도로교통과 근무

증명되지 않은 진실은 진실일 수 없다는 말을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했던 일이 생각난다. 진실의 증거들,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때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렸던 지난 일들은 문고 죽이려 하면 할수록 세상의 궁색한 변명에 이가 갈리도록 화가 나기 시작했다. 참으로 웃음이 나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지난 일은 농담이고 어떻게 나오나 나의 반응을 확인했었다는 듯 웃고 넘길 일처럼 사람들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역시 세상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너 자신을 통해 과거를 반성해 보라고 하셨다,

“세상은 너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너의 노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힘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 강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워라”

삼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어제는 오늘이 된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다. 잠이 덜 깬 탓이라는 생각, 텔레비전에서 아침부터 영화를 보여주나 하는 착각, 아버지는 우두커니 앉아서 또 전쟁이 났다는 말을 하셨다. 전쟁 내가 텔레비전을 처음 보게 된 나이부터 전쟁은 늘 나에게 이미지로 남아있다. 죽음과 피 무너지고 떨어지는 폭력의 흔적들 나에게겐 익숙한 이미지들이다. 그 날 아침 분명 세상은 변해있었다.

9,11테러 그러나 무관심, 이제 전쟁은 스포츠 중계처럼 우리들에게 하나의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관공서, 학교에서는 조기를 달고 싸이렌이 울렸던 기억이 난다.



형이 아프면 동생의 마음도 아픈 것이니까
세상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은 공식적인 분위기를 통해 권위를 지켜나간다는 막연한 생각이 나의 머리를 지배했다. 막연하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분위기들이 세상의 중심의 분위기에서 그럭저럭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장막이었다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는 일부 나약한 사람들은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악한 자들이 침묵하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라 - 복수

복수는 무기이다.

난 텔레비전을 보면서 폭력과 복수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텔레비전은 나에게 눈에는 눈이라는 불변하는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내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상처를 준 대상에게 똑 같이 받아내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다. 배려하는 것은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를 준다. 난 역시 학습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어울리는 놈이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앞가림이나 신경쓰서 왜 남의 일에 그토록 정신을 낭비하나) 아주 멋지고 적극적인 충고가 분명했지만 10년이 넘게 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낱아빠진 말들이었다. 낱은 것은 역시 세습되어 권력을 만든다는 것, 현재는 과거를 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미래는 아직 재생되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었다. 난 복수를 꿈꾸는 악마였다. 난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 가고 있었다. 세상에 거울이 있다는 것에 난 강한 억압을 느낀다. 아버지와 나, 가족과 나, 그리고 세상과 나 난 이런 것들과 편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 나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극단적인 쪽을 향해 달려온 삶에서 감정을 희생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 난 하얀 우유처럼 부드럽게 살고 싶다. 딸기처럼 열정적으로 바나나 처럼 낭만적으로 초콜릿처럼 지적으로 우유 속에 모든 것을 녹이고 싶다. 우유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불안한 미래는 나의 정신, 영혼, 육체를 투자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편의점에서 난 선택을 하게 된다. 딸기와 바나나, 초콜릿우유 나의 선택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 믿는다. 난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누군가에게 음료수를 사줄 기회가 오게 되어도 사람들에게 늘 우유를 선택하게 한다. 그것도 딸기 우유만을 강요한다.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다. 나의 강요는 분명 분위기를 만들게 한다. 난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모두 딸기 우유만을 먹는다. 왜 나의 배려이기 때문이다. 난 나의 폭력을 이처럼 미화한다. 시작은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겠지, 세상보다 내가 커지는 상상, 모든 것을 집어 삼키려는 음모, 이러한 응어리를 하나 하나 녹이는 작업을 거칠 말처럼 꿈꾸고 있다. 나를 문음으로 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청소년 마당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정혜인
봄 만남, 겨울이별/노소라
친구/이정옥

엄마의 마음/박윤정
만기 없는 저축/한현민
나의 학교생활/김진원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정 혜 인 _ 충남인터넷고등학교 3학년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 가슴엔
조그만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자라면서
같이 자란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부푼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하였지요.

이 싹은 자라서
봉긋한 봉오리를 맺지요.
때로는 시들한 봉오리를 맺기도 하지만요.

어른이 되면
그 결과로 마음의 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꽃은 아주 아름답지만
어떤 꽃은 피기도 전에 죽어버리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 속 씨앗이 꽃 피우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과 말에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봄 만남, 겨울 이별

노소라 _ 논산여상 2학년

봄에 새로 돌아난
푸른 새싹처럼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널 만났고

여름에 억수같이 퍼붓는
장맛비처럼
너와 나를 갈라놓던
어두운 비구름도 있었고

가을엔 그림같이 예쁜
하늘, 들, 단풍잎의 속삭임 아래
설레임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첫사랑을 품었고

겨울은 꿈같은 추억을
소리없이 눈에 덮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시린 이별을 했었지

그리고 봄은 다시 돌아왔지
너와 나는 끝나지 않을
자연의 사계처럼
숨쉬지 않을 때까지 영원할 꺼야.



친구

이정옥 _ 논산여상 2학년

모든 게 다 너의 짐이라 생각하지마

늘 비가 내리지는 않잖아
꼭 길이 똑바르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은 힘들 때도 있는거야

길을 걷다 지치면 잠시 쉴 수도 있는 거지
길을 걷다 비 오면 나라는 우산 아래
비를 피해도 돼

너에겐 나라는 우산이 있고
나에겐 너라는 우산이 있어

우리는 함께 길을 걷는
서로의 친구잖아!





엄마의 마음

박윤정 _ 충남인터넷고등학교 3학년

나에게는 한 살 차의 여동생이 있다.

성격, 취향, 취미는 물론 외모도 비슷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우리는 친 가족이라 생각하기 힘들 만큼이어서 겉도 도장에 다닐 때에도 관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나와 동생이 남인 줄 알고 있었다.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다보니 오래 연년생들이 그러하듯 나와 동생도 사이가 좋지 않아 아직도 하루에 한 번 꼴로 싸우고 있다. 주로 싸우는 이유는 동생의 행동이라거나 성격에 관해서였는데 올해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교복은 사오기가 무섭게 치맛단을 뜯어버리고 줄여놓고 머리는 매일같이 고데기로 꼬아놓고, 집에는 저녁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다.

엄마가 동생이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비 문제로 새벽까지 하는 식당일을 하게 된 후로는 더욱 심해져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고 집에 왔다가도 금세 나가서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집에 연락도 없이 밖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다 2주 전 쯤 해서 동생이 가출을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가방도 교복도 없기에 학교에서 늦게 오나 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집에 오지 않아 동생과 자주 노는 두 명에게 전화해봤는데 한명은 같은 학교가 아니라 모른다하고 다른 한명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7시~8시 쯤 되어서 '이 녀석이 또 가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에도 특하면 나랑 싸우고 가출한 답시고 가방 싸들고 나가서 한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오던 녀석이라 맘 놓고 방청소도 해 두고 엄마 드릴 야식을 챙기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9시가 되어있었다.

학교가 아무리 늦게 끝났어도 6시면 집에 올 녀석인데 세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동생이 왔



나 안 왔나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는 통에 아무리 미워도 하나뿐인 친동생, 그것도 여자애인지라 슬슬 걱정이 되었다. 동생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물어도 연락이 없었다하니 답답해 좀 전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동생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더니 역시나 같이 있지 않다는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잘 생각해보니 방금 통화를 했던 애는 분명 혼자서는 어디 나갈 애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지도 않는데 버스의 알림 음이 들린 것이 거슬렸다. 일전에도 둘이 자주 거짓말을 하고는 나가놀았기에 '이 녀석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번에도 거짓말이나 해대?' 하는 생각에 다다르자 울컥 짜증이 치솟았다.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 난 신경도 쓰지 않으려다. 오기만 해봐라 한 대 쳐 줄 테다. 그냥 도로 내 쫓아버릴까?' 집에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동생을 생각하며 이를 갈고 있다가 잠이 들었었다.

얼마쯤 자고 있었나,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어보니 언제부터 울고 계셨는지 새빨갳게 눈이 부은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깜짝 놀라서 엄마를 진정시키고 시계를 보니 12시. 일이 끝나려면 2시간이 더 남았는데 어째서 지금, 그것도 울면서 오신 것인지 의아해 여쭙어보자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에게서 중부대학교 근처에서 있던 가출한 여자애 둘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동생이 가출한지 모르고 계셨던 엄마는 다니시던 식당 일을 그만 두시고 집으로 달려오신 것이라 하셨다.

계속 눈물 흘리시면서 동생과 함께 있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디인지 묻고 전화를 끊었다가 택시비를 내 주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서 오는지 묻지 않은 것을 떠올리시곤 택시기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받지도 않는 두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골목 밖으로 나가 기다리니 택시가 왔다. 동생 친구는 오는 도중에 집 근처에서 내리고 동생과 택시기사아저씨 둘 뿐이었다. 뭐가 좋다고 웃고 있는 동생을 보며 다가가서 때리려는데 엄마가 먼저 다가가 택시비를 건네고는 동생을 데려와서는 집에 들어갈 때 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 같으면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생각도 하지 않는 저런 녀석 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지 멋대로 살라고 쫓아낼 텐데 엄마 드시라고 차려둔 야식도 먹이고 대화하는 모습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도 가족에 속한 일원이니까 엄마나 나나 집안일이거나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같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문득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가족들 간의 정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 크기가 달라서 알지 못하는 것 일 뿐 나 또한 내 나름대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필요로 할 때 고민상담도 해주고, 위하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 이다.

그때의 동생을 대하던 엄마와 나의 차이의 이유는 '가족 간의 정'의 유무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인 듯하다.

만기 없는 저축

한현민 _ 논산여상 3학년

길가에 코스모스들이 활짝 얼굴을 내밀고 불어오는 산들바람 리듬에 몸을 싣고 이리저리 춤을 추는 계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작고 앙증맞은 이름 모를 풀꽃들이 나를 반긴다.

방송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책, 책, 책’ 하고 친구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가벼운 잡지책이나 읽기 쉬운 소설책에 손이 먼저 가는 독서습관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가끔씩 좋은 책을 선물하시면서 이런 나에서 무언의 꾸중을 하신다.

작고 귀여운 남자아이가 키가 큰 어른한테 작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는 책표지가 웃음을 자아내는 책 ‘배려.’ 첫 장을 열어보니 주인공이 회사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내용 같아서 제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이 왔다. 하지만 첫 장을 연 이상 끝까지 읽어보기로 하고 조금씩 읽다보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 위를 비롯하여 언제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어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공자 알, 또 그 밖에 요술공주와 명함수집가, 직업조문객, 심지어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스퍼거까지 재미있는 이름만큼이나 저마다 거기에 맞는 행동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착한 사람한테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약한 사람한테는 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고 공자는 말한다. 실제로 공자 같은 사람이 자꾸만 삭막해지고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세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들은 자신이 사소하게 생각한 잘못들 때문에 남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마침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남을 위하여 마음이 결국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지는 않을텐데,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처럼 정말 그런 것 같다.

나도 이제 열여덟 살, 세상을 많이 살지 않은 어린 나이이지만 그래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내 자신도 모르
게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앞을 못 보는 어떤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남들은 앞도
못 보면서 등불을 든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맞은편 사람이 자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한 그 마음
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주인공 위도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남보다 뛰어나 머리로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지
고 난처해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회사생활을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마음에 문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인도자라는 고문을 만나서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이용하여 일을 성사시키고 해결한다는 잘못된 생각
을 버리게 되고 또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멀어졌던 가정도 다시 따뜻한 가정이 된다.

사람이 둘만 모여도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씨인
것 같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예상 밖의 큰일에 감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외로 작
은 것에서 감동을 받는데 그 속에는 커다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나를 이렇게 한다면 남들이 어떤 불편
을 겪을까? 또 남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미리하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들이나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위호하고 그래서 대부분 자신에
게는 너그럽다. 나또한 그 중의 한사람으로서 반성을 해본다.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나를 넘어서는 도약대이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곱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쟁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아닐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 날마다 노력하는 것. 자연스럽게 즐거운 것. 사소
하지만 위대한 것. 이 다섯 가지의 실천 포인트를 숙제처럼 내주면서 진정한 배려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저축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처음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
데 두 번 읽고 보니 ‘배려’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난히 햇살 맑은 이 가을날 하늘은 높고 푸른데, 이 한권의 책이 내 마음속에 잔잔한 보석으로 자리 잡
았듯이 이 책을 읽는 이들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쯤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얻어줬으면 하
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나의 학교생활

김진원 _ 이화초등학교 5학년

나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선다. 아침 이슬 쏘아 먹는 참새 소리 들으며, 아직 겨울 기운 남아 쌀쌀함이 느껴지는 봄바람을 뚫고 등교를 한다. 자전거로 5분, 걸어서 10분 거리를 헉헝거리며 교문에 들어서면, 언제나 푸름을 자랑하는 노송 일곱 그루가 가장 먼저 반긴다. 떨어진 솔가루를 줍는 일은 어렵지만,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소나무다.

교실에 들어가면 먼저 온 친구들이 웃음으로 맞는다. 칠판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즐거운 독서 시간' 이 눈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오늘은 조용히 독서해서 꾸중을 듣지 않아야지' 하고 책을 꺼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썽꾸러기 삼총사와 어울린다. 선생님의 호령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혼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공부가 끝나고 고대하던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반찬이 나를 즐겁게 할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언제나 들뜬다. 친구들과 오순도순 밥을 먹으며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반찬이 맘에 들면 즐겁게 먹지만, 반찬이 맘에 들지 않으면 투덜대며 남기는 때가 많다. 나는 집에서도 반찬 투정을 잘 한다. 반찬이 맘에 들지 않으면 꺾을 때도 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걱정을 듣는다. 그러나 학교 급식은 우리 집의 반찬보다 맛있을 때가 더 많아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점심을 먹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 나는 남자 화장실 청소 당번이기 때문이다. 청소를 빨리 끝내야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친구를 재촉해 청소를 서둔다. 얼룩진 곳은 옥시싹싹을 뿌려 광을 내고, 금요일은 대청소날이라 물청소로 바닥을 목욕시킨다. 청소를 제대로 하다보면 아까운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청소를 빨리할까를 늘 생각한다.



5교시 시작이다. 교실에 들어와 시간표를 보니 5교시는 체육이다. 들뜬 마음으로 운동장을 향하는데,

“야, 오늘 체육은 교실에서 보던 단원이래.”

친구의 외침에 김이 팍 샌다. 백산이, 친구와 함께 개구쟁이 삼총사는 불만을 터뜨린다. 혹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다.

매일 6교시는 방과 후 학교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영어, 목요일과 금요일은 컴퓨터를 공부한다. 영어 시간

엔 주로 회화를 한다. 작년엔 오스트리아 사람 보리스 선생님한테 1주일에 한 시간 영어를 공부했다. 그래서인지 외국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을 것 같다. 간단한 내용을 영어로 말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은 컴퓨터 시간이다. 왜냐하면 게임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이다. 공부가 시작되면 게임을 할 수 없지만, 공부 시작 전에 얼른 가서 10분 정도 게임을 하고, 공부가 끝난 후 다시 10분 정도 할 수 있다. 물론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이 나지만 나는 요령껏 시간을 아껴 게임을 즐긴다.

6교시가 끝나면 집에 간다. 나는 매일 민성이, 정석이와 함께 집에 간다. 점심을 남긴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내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두 친구가 먹을 것을 사 준다. 나도 가끔씩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 준다. 이렇게 셋이서 군것질 하며 집에 가는 시간은 아침 등교 시간의 두세 배가 걸린다. 따스한 햇볕 받아 싱그럽게 피어나는 새싹을 구경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철새들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집 앞에 다다른다. 헤어져야 할 순간이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다시 이야기꽃을 피운다. 책에서 읽은 내용, TV에서 본 다른 나라의 풍경, 할머니한테 들은 옛날이야기를 하며 듣다보면 시간은 한참을 더 흐른다.

‘안녕’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작별을 한다.

언제나 다정한 친구가 있고, 언제나 푸른 소나무가 있어 나의 학교생활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논산시 지정문화재 목록

- 지정문화재 : 총 117건
 - 국가지정문화재 : 11건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 43건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 33건
 - 논산시향토유적 : 30건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보물 218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63. 1. 21	논산시 관촉동 254
보물 219	개태사지석불입상	63. 1. 21	연산면 천호리 108
보물 232	관촉사 석등	63. 1. 21	논산시 관촉동 254
보물 408	쌍계사 대웅전	63. 1. 21	양촌면 중산리 3
보물 724	성주대씨종중문서	81. 7. 15	연산면 관동리 132
보물 727	남양전씨종중문서	81. 7. 15	성동면 우곡리 107
보물 1495	윤증초상 일괄	06. 12. 29	노성면 교촌리 306
중요민속자료 22	윤증가 유품 일괄	70.12.30	노성면 교촌리 306
중요민속자료 190	윤증선생 고택	84.12.24	노성면 교촌리 306
천연기념물 265	화악리 오골계	80. 4. 1	연산면 화악리 233-1, 235-1
사 적 383	논산 돈암서원	93.10.18	연산면 임리 74
사 적 393	노성산성	95. 8. 2	노성면 송당리 산1-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유형 9	연산아문	73.12.24	연산면 연산리 228-1
유형 10	논산 원목다리	73.12. 24	채운면 야화리 93-2
유형 11	강경 미내다리	73.12. 24	채운면 삼거리 541
유형 30	노강서원	74. 9. 1	광석면 오강리 227
유형 53	관촉사 배례석	76. 1. 8	논산시 관촉동 254
유형 54	논산 신평리마애불	76. 1. 8	부적면 신평리 산 11-1
유형 55	논산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76. 1. 8	부적면 덕평리 산 4-2
유형 60	논산 탑정리 석탑	76. 1. 8	부적면 탑정리 산 5
유형 63	이심장군 유물	76. 1. 8	상월면 주곡리 51
유형 67	임이정	76. 6. 9	강경읍 황산리 95
유형 76	팔괘정	78. 3. 31	강경읍 황산리 86-1
유형 86	익성군 신도비 및 무석	79. 7. 3	은진면 용산리 산 93-3
유형 88	논산 관촉동 비로사나석불	79.12. 19	논산시 관촉동 215
유형 91	연산 천호리 비로사나불	80.10.23	연산면 천호리 산 22
유형 109	고정리 양천 허씨 정려	84. 7. 26	연산면 고정리 304
유형 110	김계회 신도비	84. 7. 26	연산면 고정리 13-1
유형 128	김장생 문묘 배향 교지	87.12.30	연산면 고정리 178
유형 129	영사암	89. 4.20	부적면 신평리 산11-1
유형 150	용서 봉계 성재공 문집 판각	96.11.30	부적면 부황리 산29
유형 152	파평윤씨 중학당	87.12.30	노성면 병사리95
유형 155	돈암서원 유경사	2000.1.11	연산면 임리74
유형 156	돈암서원 응도당	2000.1.11	연산면 임리 74
유형 175	논산 상드리 마애불	04.3. 30	상월면 상드리 산 60
무형 14	연산 백중놀이	91. 7. 9	연산면 청동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민속자료 1	개태사 철화	73.12.24	연산면 천호리108
민속자료 7	이삼장군 고택	85.12.31	상월면 주곡리 51
민속자료 8	윤환선생 고택	85.12.31	노성면 장구리 52
민속자료	무안박씨요여	04.10.30	상월면 학당리 368
기념물 12	노성 قل리사	78.12.30	노성면 교촌리301
기념물 20	논산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76. 1. 8	부적면 덕평리 산 4-2
기념물 26	전견혈묘	81.12.21	연무읍 금곡리 산 18-1
기념물 27	갈산리 공슬(쌍군송)	82. 8. 3	광석면 갈산리 산 26-22
기념물 44	개태사지	83.9.29	연산면 천호리
기념물 47	김장생선생 묘소 일원	84. 7.26	연산면 고정리산7-4
기념물 56	황 산 성	85. 7.19	연산면 관동리 산 13외 6필지
기념물 74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89.12.29	부적면 신평리 산 4-2
기념물 92	황해(봉화)산성	93.12.31	논산시 등화동 산1
기념물 94	논산 표정리 고분군	94.11. 4	연산면 정리산58-2외2
기념물 95	논산 육곡리 고분군	94.11. 4	가야곡면 육곡리 산 6-1 외 4
기념물 118	노성향교	97.12.23	노성면 교촌리308
기념물 119	연산향교	97.12.23	연산면 관동리 431
기념물 120	은진향교	97.12.23	은진면 교촌리 77
기념물 152	성동 은행나무	2000.1.11	성동면 개척리 228-1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유형 75	죽림서원	84.5.17	강경읍 황산리 101
유형 76	행림서원	84.5.17	가야곡면 육곡리 420-1
유형 78	금곡서원	84.5.17	연무읍 금곡리 347
유형 79	관촉사석문	84.5.17	논산시 관촉동 254
유형 80	쌍계사부도	84.5.17	양촌면 중산리
기념물 81	성심묘묘	84.5.17	가야곡면 양촌리 산 58
유형 83	송불암미륵불	84.5.17	연산면 연산리 75
유형 87	효암서원	84.5.17	가야곡면 산노리 16
유형 274	개태사오층석탑	85.7.19	연산면 천호리 108
유형 275	개태사지석조	85.7.19	연산면 천호리 도396
유형 276	논산수락리미애불	85.7.19	벌곡면 수락리 산14-1
기념물 277	외성산성6필지	85.7.19	부적면 외성리 산 16-2
기념물 278	논산신기리지석묘	85.7.19	양촌면 신기리 340-2
유형 280	유봉영당	85.12.31	노성면 병사리182
유형 391	윤환선생재실	04.10.30	노성면 장구리 37
유형 282	임수택가옥	87.12.30	연산면 오산리 117-3
유형 294	김집선생사당	87.12.30	연산면 임리 267
유형 295	김집선생교지	87.12.30	연산면 임리 267
기념물 296	김집선생묘	87.12.30	벌곡면 양산리 산 35-3
유형 299	파평윤씨재실	88. 8.30	노성면 병사리 27
유형 307	모선재	89.4. 20	연산면 고정리 293
유형 309	백파선생영당	89.4. 20	벌곡면 조정리 256
유형 328	연산송정리미애삼존불	89.12.31	연산면 송정리 산14-2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유형 329	익안대군영당	89.12.31	연산면 화악리
유형 350	충한공요전재실	96.11.30	노성면 병사리 17
유형 351	신임일기	96.11.30	부적면 부황리 164
유형 350	파평윤씨덕포공재실	97. 12. 15	노성면 병사리 27
유형 363	김임신도비	98. 12. 29	노성면 호암리 산5
유형 366	둔암서원원정비	2000.1.11	연산면 임리 74
유형 367	논산영묘재	2000.1.11	연산면 고정리 148
유형 378	연산 영사재	2002.1.10	연산면 고정리 289
유형 383	논산 영사재	2003.10.30	상월면 대우리 163-1
유형 388	논산 석성 수탕석교	2004.3.30	성동면 원북리 618

논산시 향토유적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향토유적 1	강경덕유정	92. 10. 28	강경읍 동흥리 47
향토유적 2	주곡리장승제	92. 10. 28	상월면 주곡리
향토유적 4	연산 덕암리 고분군	92. 10. 28	연산면 덕암리 산1
향토유적 6	양촌 모촌리 고분군	92. 10. 28	양촌면 모촌리 산39
향토유적 7	의정공 김국광사당	92. 10. 28	연산면 고정리 148
향토유적 9	둔암서원책판	76. 1. 8	연산면 임리 74
향토유적 10	윤창세선생 묘소일원	92. 10. 28	노성면 병사리 산 1-3
향토유적 11	윤환선생묘소일원	92. 10. 28	노성면 장구리 산 2-1
향토유적 12	윤증가책판	92. 10. 28	노성면 교촌리 306
향토유적 13	서익선생 유품	92. 10. 28	가야곡 육곡리 394
향토유적 14	충 헌 사	92. 10. 28	상월면 주곡리 22
향토유적 15	봉 곡 서 원	92. 10. 28	연무읍 고내리 1087-35
향토유적 16	휴 정 서 원	92. 10. 28	부적면 신평리 36
향토유적 18	선 충 사	94. 12. 30	은진면 방축리
향토유적 19	백봉이민진정려	96. 12. 30	연산면 청동리 224
향토유적 20	일부김향선생묘소	96. 12. 30	내동 동신 102-303
향토유적 21	학성군김완장군 영당	96. 12. 30	노성면 죽림 산44-5
향토유적 22	김기서효자정려	96. 12. 30	양촌면 모촌리 산13-2
향토유적 23	조 정 서 원	96. 12. 30	가야곡면 조정리 산 6

논산시 향 토 유 적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 년월일	위치
향토유적 24	해 조 문	96.12.30	강경읍 북옥리
향토유적 26	백일헌영당	96.12.30	상월면 석종리 535-1
향토유적 27	이심장군 재실	96.12.30	상월면 석종리 534
향토유적 28	김희선생 묘소	96.12.30	연산면 관동리 산 43-1
향토유적 29	금곡리 전통한옥	98. 9. 11	연무읍 금곡리 122-1
향토유적 30	신 충 사	98. 9. 11	상월면 신흥리 52-1
향토유적 31	봉계공 (윤유)선생 영당	98. 9. 11	부적면 부황리 산 29
향토유적 32	무명용사기념탑	04. 12. 22	연무읍 금곡리
향토유적 33	순국경찰관 합동묘지	06. 7. 13	논산시 등화동 177-3
향토유적 34	양함선생 충신정려	06. 7. 13	상월면 신흥리 94-1
향토유적 35	춘곡사	06. 7. 13	벌곡면 한삼천리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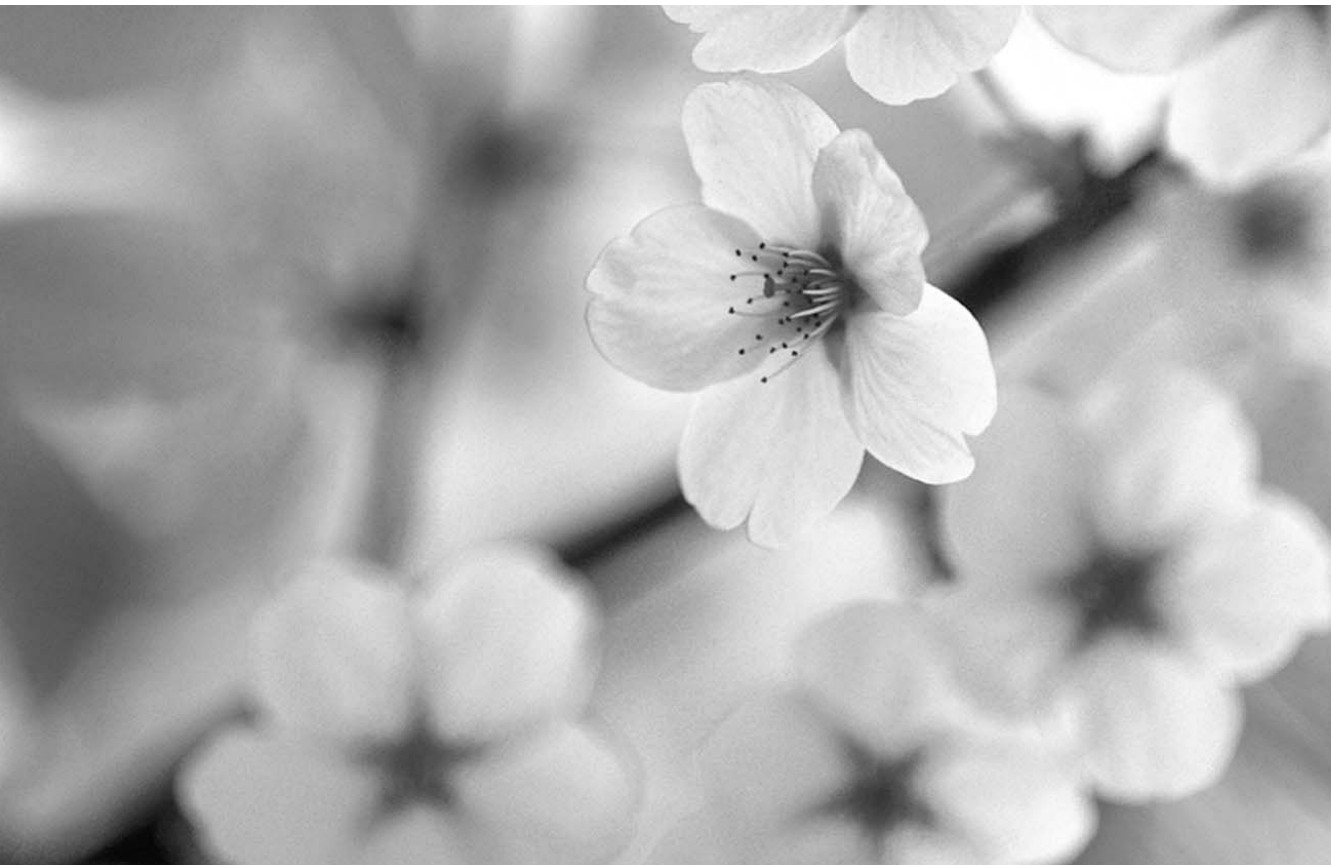
문화행사소개

YWCA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청소년수련관



YWCA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Tel. 736-6244)

	프 로 그 램	개월	수강료	시 간	내 용
직업능력개발	셈학습지도사	2개월	7만원	화/ 오전10:00~13:00	주산식 암산능력을 길러주는 수학지도방법
	동화치료사	3개월	20만원	화/ 오후19:00~21:00	동화구연을 통한 감정이입을 적용한 치료기법
	한자교육지도사	4개월	24만원	수,금/ 오전10:00~13:00	한자의 구성원리, 부수의 해설, 자해물이 한자지도법
	한식조리사	3개월	27만원	수,목,금/ 오전10:00~12:00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이론 및 실기 55가지
	초등논술지도사	3개월	30만원	목/ 오전10:00~12:00	논술의 전문적인 교수법을 익혀 초등논술지도사양성
	아동미술심리교실	2개월	5만원	목/ 오전10:00~12:00	아동발달심리, 그림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아이의 심리
	가베지도사	3개월	15만원	금/ 오전10:00~12:00	1~10가베, 연합가베 등 다양한 가베를 활용한 창의력 향상 지도법
	스토리텔링	3개월	15만원	화/ 오전10:00~12:00	스토리북을 활용한 영어독서 지도법, 노래챗트, 게임, 교구재 제작등
사회문화	생활요리	2개월	7만원 (재료비포함)	화/ 오전10:00~12:00	계절에 맞는 신선한 요리재료를 이용한 생활요리교실
	아로마향기요법	4주	3만원	목/ 오전10:00~12:00	아로마를 이용한 흡입 맛사지방법
	찌개,전골,밀반찬	2개월	7만원 (재료비포함)	토/ 오전10:30~12:20	계절에 맞는 신선한 요리재료를 이용한 찌개,전골,밀반찬 만들기 요리 교실
	건강요가교실	2개월	4만원	월,목/ 오후14:00~15:00	건강및 다이어트를 위한 체형교정 스트레칭 요가교실
	건강발관리	6주	3만원	목/ 오전10:00~12:00	가족의 건강을 위한 발관리 및 마사지방법
정보화	엑셀단기반	1개월	5만원	월,수,금/ 오전10:00~12:00	엑셀을 사용한 문서작성방법 및 실생활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2개월	10만원	월,수,금/ 오전10:00~12:00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취득하기 위한 이론 및 실기
어린이놀이터	송알송알 영어로 놀자	3개월	6만원	금/ 오전11:00~12:00	24개월~4세를 대상으로 아가와 엄마가 함께하는 교구를 이용한 영어놀이
	영어동화놀이	3개월	6만원	토/ 오전10:30~11:20	5~7세를 대상으로 극놀이, 교구를 활용한 영어놀이
	그림으로 나를 말해요	3개월	6만원	토/ 오전11:30~12:20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두뇌개발 및 창의력 발달을 위한 가베놀이 교실
	어린이 가베교실	3개월	6만원	목/ 오후16:20~17:10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두뇌개발 및 창의력 발달을 위한 가베놀이 교실
무료훈련	가사도우미	1주	무료	월-금/ 오후13:00~17:00	가사도우미 활동을 위한 이론 및 실습 ※ 한국산업인력공단지원사업
	케어복지사(여성가장실업자훈련)	3개월	무료	월-금/ 오후13:00~17:00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노동부지원무료훈련
	행복한가정만들기 부모교실	10주	무료	금/ 오전10:00~13:00	자녀의 사회적안전 추구를 통한 밝고 건강한 가정육성 및 가족간 이해도 증진 및 유대감 향상
	NIE (신문화교육)	3개월	무료	금/ 오전10:00~13:00	방과후 아동지도의 NIE 및 교육활용 및 NIE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

종합사회복지관 (Tel. 735-4151)

■ 어르신(65세이상) · 장애인반 : 수강료 무료

프로그램	모집인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비고
댄스스포츠(초급)	20	1. 19 ~ 6. 22 (6개월)	금, 10:00~12:00	
댄스스포츠(중급)	20	1. 19 ~ 6. 22 (6개월)	금, 14:00~16:00	
노래교실	30	1. 15 ~ 6. 18 (6개월)	월, 10:00~12:00	
서예	10	1. 17 ~ 6. 20 (6개월)	수,금, 14:00~16:00	
한글(중급)	10	1. 16 ~ 6. 21 (6개월)	화,목, 10:00~12:00	
한글(초급)	10	1. 16 ~ 6. 21 (6개월)	화,목, 14:00~16:00	
풍물놀이	20	1. 16 ~ 6. 22 (6개월)	화,금, 10:00~12:00	
생활영어	10	1. 15 ~ 6. 20 (6개월)	월,수, 10:00~12:00	
단전호흡	10	1. 16 ~ 6. 21 (6개월)	화,목, 10:00~11:00	
고유음식재현	10	1. 22 ~ 6. 18 (5개월)	월, 13:00~14:00	

■ 어르신(65세이상) · 장애인 · 여성반 : 어르신 · 장애인 무료, 여성 50,000원

프로그램	모집인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비고
수지침	10	1. 23 ~ 6. 22 (5개월)	화,금, 14:00~16:00	
가야금	10	1. 22 ~ 6. 20 (5개월)	월,수, 10:00~12:00	
한지공예	10	1. 23 ~ 6. 22 (5개월)	화,금, 10:00~12:00	
경락(팔사견강요법)	10	1. 24 ~ 6. 20 (5개월)	수, 14:00~18:00	
판소리	10	1. 22 ~ 6. 20 (5개월)	월,수, 14:00~16:00	
한국무용	10	1. 22 ~ 6. 20 (5개월)	월,수, 14:00~16:00	

■ 여성반 : 수강료 50,000원

프로그램	모집인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비고
밸리댄스	10	1. 23 ~ 6. 21 (5개월)	화,목, 14:00~16:00	
단전호흡	10	1. 23 ~ 6. 21 (5개월)	화,목, 11:00~12:00	
홈패션	20	1. 23 ~ 6. 21 (5개월)	화,목, 10:00~13:00	
양재	20	1. 22 ~ 6. 20 (5개월)	월,수, 10:00~13:00	
피부관리	10	1. 22 ~ 6. 21 (5개월)	월,목, 14:00~16:00	
페백이바지	10	1. 22 ~ 6. 20 (5개월)	월,수, 10:00~13:00	
사군자	10	1. 24 ~ 6. 22 (5개월)	수,금, 10:00~12:00	
와이어공예	10	1. 22 ~ 6. 18 (5개월)	월, 13:30~16:30	
꽃꽂이	10	1. 22 ~ 6. 18 (5개월)	월, 10:00~12: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수강료 납부 (개강이후에는 환불 불가)

◎ 접수기간 : 2006. 12. 1 ~ (선착순 접수)

◎ 접수문의 : 종합사회복지관 TEL (041) 735-4151, 730-4646, 4643

★ 등록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일 경우 개강하지 않음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Tel : 733-0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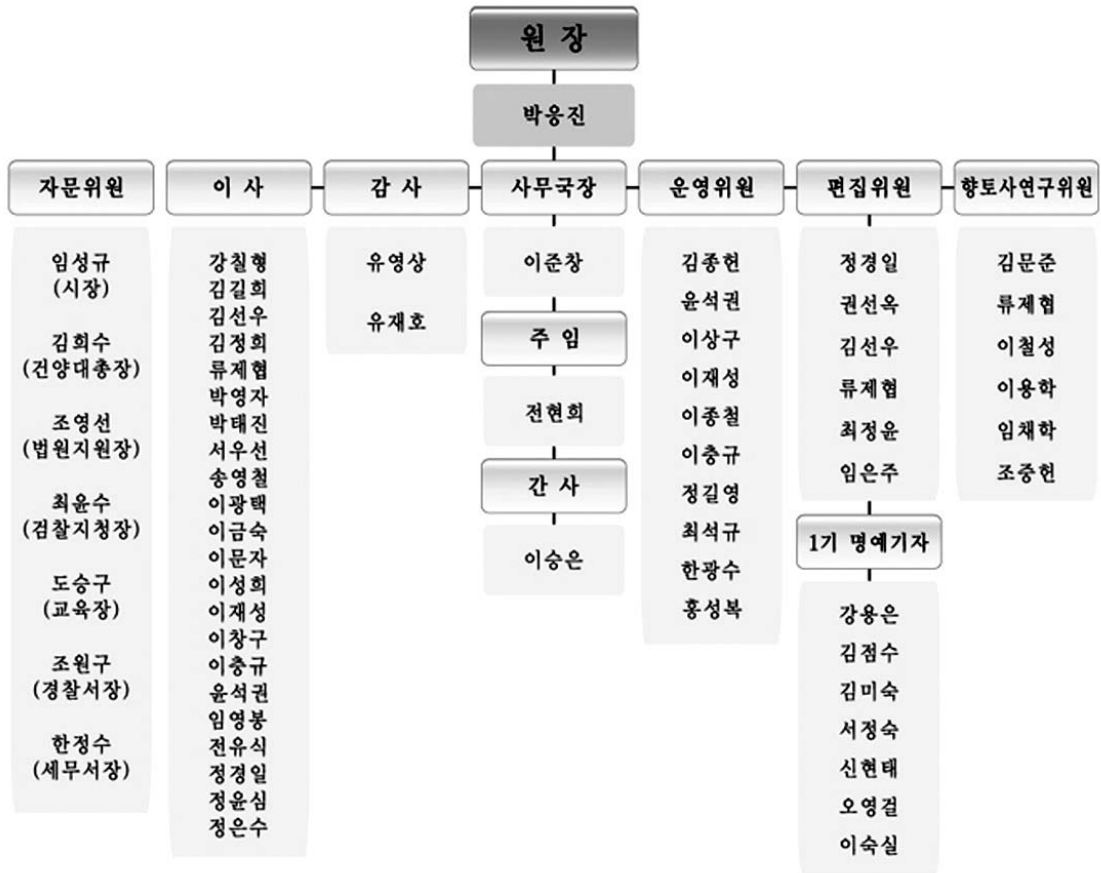
연구회명	교 육 일	내 용
꽃꽂이	매월 1·3주 수요일	꽃꽂이 이론 및 실기
놀외향토음식	매월3주 화요일	생활 및 전통음식 실습
수 지 침	7월~9월 매주 목요일	수지침 이론 및 실습
생활도자기	매월 1주 화요일	도자기 빚기(공주 도예촌)
풍물놀이	매월 끝주 월요일	풍물 가락 습득 및 연주
천연염색	매월 4주 금요일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 실습
생활공예	매월 1주 금요일	손뜨개, 칠보, 펄프, 등 공예실습
농산물가공	매월 2주 금요일	농산물활용 음식 실습
한울타리(등산)	매월 3주 목요일	등산 및 자연보호 활동
숨씨맵씨(재봉)	매월 3주 월·수요일	양재일반실습
푸르네(원예)	매월 4주 화요일	가정원예 실습
건강백세	7~9월 매주 월요일	기체조, 단전호흡 등 실습
미 용	부 정 기	미용실습 및 봉사활동

청소년수련관 (Tel.733-8503~4)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대 상	운영장소	소요재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연중	중,고,대학생	수련관	수련관지원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3월중	중,고	전통문화센터	수련관지원
청소년문화축제	4월중	중,고	딸기축제장	수련관지원
청소년이 여는 작은 음악회	5월중	중,고	야외무대	수련관지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6월중	중,고	공설운동장	수련관지원
독도탐방캠프	7월중	초,중,고	금강산현지	자부담/수련관지원
논산시청소년가요제	9월중	초,중,고	문화예술회관	수련관지원
청소년연합방송제	11월중	중,고	미 정	수련관지원
동계스키캠프	12월중	초,중,고	미 정	자부담/수련관지원

- 청소년들의 취향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청소년간 친목 및 친교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를 통한 지역내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과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각종 경진대회 개최
(청소년가요제/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청소년축제 등등)
- ◆ 문의전화 : 041-733-8503-4 fax : 041-733-8506

논산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옛날 사진 공모

논산문화원에서는 옛 사진으로 보는 '논산의 역사' 전시회 및 발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 그리고 가정의 사진첩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진자료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진을 확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집된 자료는 설명을 붙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논산의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소장하고 계신 사진이 바로 논산의 어제이고 오늘입니다. 논산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 공모사진의 종류

현재 사라지고 없는 옛날 모습이 담긴 논산지역의 사진(지형, 건물, 인물등)

• 공모기간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수시접수

• 연락하실 곳

논산문화원 T.041)730-4632, 732-2395, F.041)732-2394 논산시 내동 279-4



1942년 5월 30일에 쌍계사에서 열린 충남 강경 전매서 관할 연초소매소 대표자 모임 가운데 줄 왼쪽 두 번째가 제공자의 부친 이철의 선생.

· 사진제공 : 이기재(한국예총 논산지부 회장)

2007년도 신년교례회 선물 보내주신 분들

(가나다순)

기관 및 단체	성명
강경농업협동조합장	이종빈
건양중고등학교 교장	조정휘
건양대학교 총장	김희수
고려클리닉 원장	최의규
국민은행논산점장	이재훈
굿모닝논산 사장	김용훈
광석면사무소 면장	윤여향
남부평생학습관장	김규동
낭랑미용학원 미용실 원장	이나영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이용학
논산축산업협동조합장	임영봉
논산문화원 이사	김정희
논산시 환경사업소장	우종만
논산시장	임상규
논산문화원 이사	정윤심
논산문화원 이사	박영자
논산우체국장	신승평
논산문화원 회원	전운장
논산계룡산림조합 지점장	박충규
논산행정동우회장	김철기
논산문화원 이사	류제협
논산시교원총연합회장	박일수
논산시의회 의원	윤종근
논산동부농협동조합장	이충열
논산문화원 이사	박태진
논산시의회 의장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원	이태세
논산시의회 의원	김영달
논산시의회 의원	김용제
논산시의회 의원	김형도
논산경찰서장	조원구
논산문화원 이사	이성희

기관 및 단체	성명
논산교육청 교육장	여남현
논산시연합반영회장	이창구
논산투데이 사장	서정우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
농협동조합 논산지부장	류지홍
대한적십자사논산부녀봉사회장	유향덕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유상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최선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장	이창형
바르게살기운동논산시협의회장	김태갑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논산지부장	신형철
백제종합병원장	이재성
성동면사무소 면장	홍준기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장	이기범
CITY 주유소 사장	박순례
연무읍사무소 읍장	이정열
이인재국회의원연탄사무실 국회의원	이인재
에덴보육원장	고인숙
(주)월드테크 사장	조성연
전의경어머니회장	김길희
전조산업 사장	김태용
재향군인회장	장갑석
JCI KOREA 논산 회장	이태모
G25참전유공자회는논산시지회장	홍의식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송덕빈
KT 논산지점장	오세홍
한국서예협회는논산시지회장	배용환
한국전기안전공사논산지사장	박희중
한국산업(주) 사장	김종갑
한국농촌공사논산지사장	방한오
합동인쇄소 대표	배태열
행복워킹부페 사장	한명수

회원모집

논산문화를 사랑하고 논산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논산문화원 회원으로 모십니다. 현재, 200여명의 회원 여러분께서 논산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총회 및 문화원 제반 활동 참여.
- 문화원이 발행하는 각종 발간물 및 자료 제공.
- 문화원 답사 등 모든 문화행사 참여.
- 문화원 개최 음악회, 시낭송회, 연극 등 우선 초청.

◎ 회원접수 : 연중, 수시접수

◎ 회비 : 1년간 30,000원

◎ 연락하실 곳 : 논산문화원 T.041)730-4632, 732-2395, F.041)732-2394

논산문화 원고모집

향토문화 발전의 길잡이가 될 계간지 『논산문화』가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정성껏 발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훌륭한 계간지로 만들어 보고자 편집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계간지 『논산문화』는 논산문화 창달을 위해 논산시민 또는 논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인사들과 함께 논산문화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모집내용

- 시, 시조, 수필, 공트, 생활수기, 내고장소식, 비평, 논단 등 장르 제한 없음.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됩니다)
- 논산지역내 각 업체의 기업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 업체의 연혁, 이념, 제품, 비전 등을 담아 원고를 보내 주시면 편집하여 실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업체는 연락 주십시오.

◎ 모집기간

매월 10일까지.

◎ 보내실 곳

충남 논산시 내동 279-4 ☎ 320-030 (논산문화원)
T. 041)730-4632, 732-2395, F. 041)732-2394.
※ 책에 실린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논산시낭송인회 회원 모집

시의 향기를 담백 맛보는 시를 사랑하는 논산 시낭송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시를 통해 마음의 정서를 순화하고 시가 흐르는 아름다운 논산을 가꾸기 위한 논산시낭송인회에 관심있는 남녀성인(20세이상)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접수 : 연중, 수시접수

◎ 회 비 : 월 10,000원(입회비 : 20,000원)

◎ 모 임 : 월 2째, 4째 수요일 저녁 7시

◎ 문 의 처 : 논산문화원 (T. 732-2395, 730-4632)

NonSan Culture



논산문화사랑 50년을 이어온 논산문화원이 하는 일

1. 신년교례회 (1월2일)

- 각급 기관 및 단체장, 문화계 인사와 시민참석,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2. 향토사료 조사 수집

- 읍·면·동지 발간
2005년~2006년에는 강경, 광석, 부창, 부적, 성동, 양촌, 연무, 연산, 은진, 취암의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 등 조사를 마치고 2007년도에는 가야곡, 노성, 벌곡, 상월, 채운.

3.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3월 ~ 11월)

4. 지역 문화 행사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3월 3일)
- 계백장군 제향 (4월 12일)
- 제1회 논산시 여성백일장 (5월 12일)
- 노인장기 대회(6월 중)
- 청소년문화제(7월 중)
- 서예회화대회(9월 중)
- 독서의 달 행사(9월 중)
-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자리(10월 중)

5. 발간사업

- 계간지 『논산문화』 (4회 × 2,000부)
- 『논산의 금석문 대관』
- 『논산문예』 제15집(제22회 논산시 문화제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사회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함께 있으면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논산문화원,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생활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논산문화원

충남 논산시 내동 279-4 _ Tel. 041-732-2395 _ Fax. 041-732-2394 _ <http://nonsan.cult21.or.kr>

조립식건축자재 전문생산업체

- 조립식 건축자재 (프리હે브) 생산시공
- 샌드위치 판넬 생산 · 불연성 폴리 판넬 생산
- 아티론 지붕재 생산 · 철구조물 제작 · 칼라강판 성형 판매



우양강재(주)

WOORYANG PANEL CO.,LTD

■ 본 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33 T.041)741-6609 F.041)741-8500

■ 서울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5-6 석산빌딩 7층 T.02)897-5262 F.02)897-5264

대표이사 최 석 규

- 농산문화원 운영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장학회 이사

